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 주 은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미술교육에서의 문화재 현장
활용 방안 연구

- 조선시대 고궁을 중심으로 -

2013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미술교육전공

김 지 민

미술교육에서의 문화재 현장
활용 방안 연구
- 조선시대 고궁을 중심으로 -

이 주 은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미술교육전공

김 지 민

인 준 서

김 지 민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 문 개 요

문화재는 수많은 역사적인 이야기와 우리 고유의 가치관, 그리고 과학과 기술, 삶의 지혜가 녹아든 소중한 유산이며 회화, 공예, 조각, 건축, 조경 등 조형적 요소들과 절제미, 공간미, 자연미 등과 같은 다양한 미의식이 담겨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오늘의 우리 문화와 함께 존재하며 나아가고 있는 문화재의 가치를 깨닫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문화재에 대한 교육은 소재 중심적 이해나 외형적 재현, 단편적 감상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해, 표현, 감상을 통합시켜 지도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학습자로 하여금 보고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깨닫도록 해야 한다. 문화재의 가치를 깨달아 보존의식을 가지고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전달하며 새로이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고궁 문화재의 미술교육적 가치를 살펴보고 미술교육에서 고궁 문화재 현장을 활용한 문화재교육 지도 방안을 제시하였다.

미술교육은 만인을 위한 교육으로 학습자들이 풍부한 미적체험을 통해 심미적인 태도와 미적 감수성, 시각적 사고, 창의성을 길러준다. 또한 우리의 문화를 이해하고 계승하게 하는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

현재 미술교육은 미술의 이해교육, 표현교육, 감상교육이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술교육의 이러한 특징을 고궁 문화재 현장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재교육에 효과적으로 적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문화재 속의 회화적, 장식적, 건축적, 조경적인 면에서의 미적 요소와 미술교육적 가치를 살펴보고 현행 미술 교육 과정에서의 문화재 관련 영역과 그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고궁의 미술적 요소들과 미술교육적 요소를 살펴보고 문화재와 미술교육 유형 등을 고려하여 현장에서의 미술, 문화재교육 학습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개발하였다. 문화재교육과 미술교육의 바람직한 통합 교육 방향을 제시하는데 본 논문의 목적이 있다.

미술교육을 활용하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재 교육은 풍부한 미적 체험의 경험을 제공해 주고 지식을 확장하는 차원을 넘어서 적극적인 미술 수업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의 심미적 태도, 미적 감수성, 시각적 사고와 창의성을 길러주며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내면화 하여 새로이 계승, 발전시키려는 의지와 관심을 갖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

목 차

논 문 개 요

I. 서 론	1
II. 고궁 문화재의 미술교육적 접근	5
1. 고궁 문화재 속의 미술적 요소	5
1) 회화 및 문양	5
2) 조각	11
3) 건축 및 조경	14
4) 기타 장식적 요소	17
2. 고궁 문화재의 미술교육적 가치	21
III. 현행 미술교육과정에서의 문화재 영역	24
1. 미술교과서에서의 문화재관련 교육 현황	24
2. 미술교과서에서의 고궁 문화재 활용 교육 현황	50
IV. 미술교육에서의 고궁 문화재 현장 활용 방안	55
1. 미술교육과 고궁 문화재 교육의 연계 학습 방향	55
2. 고궁 문화재 활용 현황 및 방법	60
3. 고궁 문화재 현장 미술 교육 지도 계획	68
4. 고궁 문화재 현장 미술 수업 활동지	73
V. 결론	85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 차

<표 1> (주)교학도서 문화재관련 교육 현황	24
<표 2> (주)금성출판사 문화재관련 교육 현황	28
<표 3> 두산동아 문화재관련 교육 현황	31
<표 4> (주)미래엔 문화재관련 교육 현황	33
<표 5> 미진사 문화재관련 교육 현황	35
<표 6> 비상교육 문화재관련 교육 현황	37
<표 7> 아침나라 문화재관련 교육 현황	39
<표 8> 천재교과서 문화재관련 교육 현황	42
<표 9> 천재교육 문화재관련 교육 현황	44
<표 10> 형설출판사 문화재관련 교육 현황	46
<표 11> 교과서별 고궁 문화재 활용 교육 현황	50

그림 목 차

<그림 1> 일월오봉도 병풍(日月五峯圖 屏風)	7
<그림 2> 경복궁 근정전 외부 단청	8
<그림 3> 경복궁 교태전 내부 단청	8
<그림 4> 광화문 앞의 해치상	12
<그림 5> 경복궁 근정전 월대 사신상(청룡, 백호, 주작, 현무)	13
<그림 6> 경복궁 경회루	16
<그림 7> 경복궁 향원지와 향원정	16
<그림 8> 동궐도	16
<그림 9> 경복궁 자경전 꽃담	18
<그림 10> 창덕궁 낙선재 꽃담	18
<그림 11> 경복궁 자경전 꽃담 장식	18
<그림 12> 담장의 길상문자 장식	18
<그림 13> 담장의 벽사문양 장식	19
<그림 14> 경복궁 교태전 후원 아미산 굴뚝	20
<그림 15> 경복궁 자경전 후원 십장생 굴뚝	20

I. 서론

문화재는 우리 고유의 생활양식을 비롯하여 가치관, 정신 그리고 과학과 기술, 삶의 지혜가 녹아든 소중한 유산이며 회화, 건축, 조각, 조경 등의 조형적 요소들과 절제미, 형태미, 공간미, 자연미 등 다양한 미의식이 담겨있다. 이를 계승하고 새로이 전달하는 일은 현대 사회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란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는 민족 문화 유산으로 문화재는 그것이 구현하는 정신적 가치와 시각적, 음향적으로 표현하는 심미적 가치가 독특하고 주체성을 보존하는 중요한 매체이기 때문에 해당 문화재를 창조해 낸 집단이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문화재는 학습자료로서도 중요하지만 학습 과정에서 미의식이나 시대정신을 이해하며 역사에 대한 상상력과 다양한 미적 가치, 그리고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미적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현장학습이나 문화유산답사로 문화재 현장을 찾으면서도 똑같이 보이는 수많은 문화재들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스치듯 지나는 단편적 감상에 머물고 있다. 그들이 접한 문화재에 대해 나중에 기억하는 것이 거의 없거나 보지 못하고 지나치는 미적 요소가 많아 안타까운 현실이다.

특히, 우리의 다양한 문화재 중 고궁은 종합 미술 교육의 장소라 할 수 있다. 고궁은 조선시대 5대 궁궐인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경운궁), 경희궁을 들 수 있다. 궁궐 안에는 일월오봉도와 단청 등과 같은 회화적 요소, 해태상과 동물상, 꽃담과 같은 조각적 요소, 궁궐의 배치와 건물 자체의 건

축적 요소, 후원에서 볼 수 있는 조경적인 요소 등 다양한 조형적 요소들과 자연소재로 지어진 건물과 배경의 자연이 어우러지는 자연미, 공간미, 지붕과 기둥 그리고 건물에서 느껴지는 비례와 처마가 만들어내는 선의 흐름 등의 형태미, 단청색의 아름다움, 절제미 등 다양한 미의식이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다.

이러한 당위성을 바탕으로 우리의 소중한 유산인 문화재를 학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들의 효과적인 문화재교육을 위해서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고 외우는 것에서 벗어나 문화재 현장에서의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체험과 더불어 문화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시청각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한 표현활동을 체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해와 표현, 감상을 통합시켜 보고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깨닫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와 같은 문화재교육의 새로운 방안을 미술교육을 통해 제시할 수 있으며 문화재 현장에서의 미술교육을 통해 전통미술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학생들의 문화 향수권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구성과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

미술교육은 만인을 위한 교육으로 다양한 미적 체험 활동을 통하여 우리의 몸과 세계의 접촉 면적을 확대하면서 주변 세계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것을 향유하는 심미적인 태도와 미적 감수성, 시각적 사고, 창의성을 길어주며 학생들의 정서와 느낌을 풍요롭게 한다. 아울러 미술 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전인적인 인간을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현재 미술교육을 살펴보면 이해교육, 표현교육, 감상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술의 이해교육은 미술에 대해 깨달아야 하는 교육이고 표현교육은 시각적, 공간적, 조형적 형태로 창작하는 활동이며 감상교육은 표현된 작품이나 자연의 미적 가치를 향수하는 활동이다. 미술에서의 이해, 표현,

감상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효과적인 미술교육을 위해서는 세 가지가 통합적으로 지도되어야 한다.

미술교육의 이러한 특징은 문화재교육에서도 효과적으로 적용될 것이며 미술교육은 문화재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새로이 발전시키고 전달할 수 있는 가장 흥미롭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미술을 중심으로 한 현장에서의 문화재교육은 학생들이 문화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문화유산을 접하면서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으므로 풍부한 미적 체험을 가능하게 하며 미술 활동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면서 학습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그 속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우리 문화재와 미술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기억하고 학습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문화재 현장 중 조선시대 고궁을 중심으로 소재 중심이나 외형적 재현, 단편적 감상 등에 머무는 것에서 벗어나 미술교육을 활용한 문화재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문화재와 미술의 통합 지도 방안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조선시대 고궁의 회화적, 장식적, 건축적, 조경적 요소를 살펴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욱 깊이 있고 흥미로운 미술교육을 활용한 문화재 학습 프로그램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제 2장에서는 고궁 문화재 속에서 회화 및 문양, 조각, 건축 및 조경, 기타 장식에서의 다양한 미술적 요소와 고궁의 미술 교육적 요소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 3장에서는 현행 미술 교육 과정에서 문화재 관련 미술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10종 미술교과서를 분석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제 4장에서는 미술교육과 고궁 문화재 교육의 연계 학습 방향을 제시하고 고궁 문화재 활용 현황 및 방법을 살펴보고 고궁 현장 미술 교육 지도 계획

을 세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학습프로그램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제 5장에서는 본 연구의 내용을 토대로 결론을 정리함과 더불어 향후 연구과제에 대해서 나아가야 할 점을 논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문화재교육과 미술교육의 바람직한 통합 교육 방향을 제시하고 고궁 문화재 현장에서의 미술교육을 활용한 문화재교육을 통해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내면화 하여 새로이 계승, 발전시키려는 의지와 관심을 갖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고궁 문화재의 미술교육적 접근

1. 고궁 문화재 속의 미술적 요소

1) 회화 및 문양

(1) 일월오봉도

일월오봉도(日月五峯圖)는 한자어 그대로 해와 달, 그리고 다섯 산봉우리를 그린 그림으로 주로 병풍 형태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일월오봉병이라고도 하며 하늘에는 해와 달, 그 아래로 청록색의 다섯 산봉우리, 쏟아지는 폭포, 파도치는 물결, 붉은 소나무, 구름, 바위, 불로초 등이 그려져 있으며 좌우대칭 구도가 형식적이지만 그 속에는 다양한 상징과 사상이 담겨있다.

정전에서뿐만 아니라 왕이 참석하는 장소라면 어디에나 사용되었으며 선대 왕들의 초상을 모신 장소에도 설치되었고 일월오봉도 앞에 왕이 있어야 비로소 그림이 완성된다고 하였다.

일월오봉도의 소재의 상징적 의미를 알아보면, 해와 달은 음양오행설을 바탕으로 대표적인 하늘의 상징임과 동시에 각각 왕과 왕비를 상징한다. 옛사람들에게 하늘은 자연질서는 물론 인간의 사회 질서까지 관장하고 주재하는 존재였다. 천명, 천의, 경천 등의 말은 하늘이 정의와 도덕의 근원으로서 따르고 존경해야 할 대상이었음을 시사해준다. 맹자는 하늘의 상징인 일월에 대해, “밝음의 덩어리이므로 빛을 받아들일 만한 곳은 반드시 모두 비취준다”라고 했다. 이는 왕을 일월에 비유해서 한 말로 해와 달이 천지를 밝히듯이 왕은 백성들은 물론 미물까지 덕으로 다스려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다섯 산은 땅의 상징이며 우리나라의 금강산(동), 묘향산(서), 지리산(남), 백두산(북), 삼각산(중악)을 말한다. 일월오봉도의 산을 살펴보면 중앙에 있는 산이 좌우의 산들보다 앞쪽에 크게 그려져 있고, 좌우의 산들은 중앙을 향해 약간 기울어지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동서남북 사방의 산들이中间的 산에 포섭된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아래로 곧게 흘러내리는 두 줄기의 폭포와 파도치는 물결은 지상의 모든 물줄기가 아직 바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도 이미 바다로 달려가는 형세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조정의 신하들이 궁궐로 모여 임금을 알현하는 것을 물이 바다로 모여드는 것에 비유한 것이다.¹⁾ 그림에서 두 줄기의 폭포는 그 아래쪽에 펼쳐진 물결로 떨어지고 있다. 이는 천하가 임금을 믿고 따르며 신하들이 모여 정사를 돌봄을 상징한다.

일월오봉도에서는 폭포의 물줄기는 파도 물결에 포용되고 파도 물결은 다시 땅을 상징하는 다섯 산에 포용되며 다섯 산은 다시 中间的 산으로, 中间的 산은 해와 달을 뜻하는 일월에 포용되므로 결국 모든 것이 하늘에 포용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다시 산과 물, 나무들이 생겨나는 우주의 이치를 담고 있다.

소나무는 사시사철 푸른 기상대로 지조, 탈속을 상징하며 시경의 ‘천보’라는 시에서 “소나무 잣나무 무성하듯이 임의 자손 무성하리”라는 표현에 연유하여 장수를 상징하며 왕조의 대대손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뜻을 담고 있다.

이처럼 일월오봉도는 왕을 향한 신하와 백성들의 칭송과 나라의 발전에 대한 염원, 그리고 우주 질서에 대한 경외심과 만물에 대한 숭배사상이 혼합된 그림이다.

1) 허균, 『궁궐 장식-조선왕조의 이상과 위엄을 상징하다』, (돌베개, 2011), pp. 52-55.



<그림 1> 일월오봉도 병풍(日月五峯圖 屏風), 비단에 채색, 149.3×325.8cm,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2) 단청(丹青)

고궁에 방문하면 건물의 벽과 천장에 흐르는 화려하고 고운 빛깔의 단청이 눈에 띈다. 단청은 붉을 단(丹), 푸를 청(靑)이라는 상반된 색을 뜻하며 건물의 벽이나 천장, 기둥 등에 그림이나 여러 무늬를 그려서 색칠하는 것이다.

현란한 색채를 뽐내며 건축물을 곱게 단장하지만 장식에만 그치지 않으며 목재 표면이 갈라지거나 썩는 것을 막아 수명을 연장하고 거친 표면을 감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목조 건축이 주를 이루는 우리나라에서는 필수였으며 건축물의 성격이나 위엄이 드러날 때도 사용되므로 궁궐이나 부처를 모신 대불전은 더욱 화려하고 섬세하게 장식하였다.

단청은 기본색으로 빨강, 파랑, 노랑, 하양, 검정을 사용하며 이를 오채라 한다. 이 다섯 색을 기본으로 하여 수많은 간색을 만들어낸다. 오채는 오행에 맞추어 칠하며 오행이란 동양철학에서 만물을 생성하고 변화시키는 다섯 원소인 나무, 불, 흙, 쇠, 물을 이르는 말로 파랑은 나무, 빨강은 불, 노랑은

흙, 하양은 쇠, 검정은 물을 의미한다. 또한 중앙을 포함한 사신을 상징하기도 한다.²⁾

단청의 기본무늬에는 삼각형, 사각형, 원형이 주축을 이루는 기하무늬, 구름당초, 인동당초 등의 당초무늬, 해, 달, 구름 등의 자연무늬, 각종 수목과 꽃을 그린 식물무늬, 용, 봉황 등의 동물무늬, 불상, 보살 등의 종교무늬, 수복, 칠보 등 인간의 길복을 기원하고 상징하는 길상무늬 등 다양하다.

이처럼 아름다운 단청에는 오행설을 따라 우주만물의 기운이 서로 어우러져 좋은 기운을 자아내라는 의미가 담겨 있으며 회화와 같이 예술적 창조력을 발휘해 온 단청은 한국미술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림 2> 경복궁 근정전 외부 단청



<그림 3> 경복궁 교태전 내부 단청

(3) 문양

문양은 형태, 색채와 함께 조형예술을 구성하는 미적 표현 요소의 하나로 일반적으로 건축, 조각, 공예, 디자인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조형예술품이 표면에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 여러 가지 형태로 장식된다.

문양은 소재, 형식, 의미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문양의 소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동식물과 같은 자연적인 것, 자연의 소재에서 세부를

2) 한석성, 박해진,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단청』, (현암사, 2004), p. 123.

단순화시켜 기호화 한 것, 점이나 선으로 구성된 기하학적인 것이 있다. 문양은 단독으로 사용되거나 연속으로 사용되면서 종교나 신화적인 주제를 상징하거나 사용하는 사람들의 소망 등의 내용을 담게 된다. 따라서 문양은 단순히 장식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다.³⁾

식물 문양에는 연화문, 모란문, 매화문, 보상화문, 인동문, 당초문, 석류문이 있으며 동물 문양에는 하늘과 왕을 상징하는 용문, 방위신인 사신문, 기린, 용, 봉황, 거북이를 뜻하는 사령문, 궁궐의 천장을 장식하거나 왕비를 상징하는 봉황문, 기린문, 물고기문, 잉어문, 박쥐문 등이 있다.

또한 복을 기원하며 좋은 뜻을 가진 글자들을 문양처럼 사용하는 것을 길상 문자라고 하는데 장수를 기원하는 壽(수), 복을 기원하는 福(복), 건강을 기원하는 康寧(강녕), 기쁨을 받기를 기원하는 喜(희), 다남을 기원하는 男(남), 높은 벼슬을 기원하는 祿(록) 그 밖에 德(덕), 貴(귀), 囍(쌍희) 등이 있다.

기하학문은 직선, 곡선, 기본도형으로 된 문양을 말하며 원문, 삼각형문, 번개형의 뇌문, 卍(만)자문 등이 있으며 그 밖에 불로장생을 상징하는 해, 구름, 물, 돌, 불로초, 소나무, 대나무, 사슴, 거북, 학을 담은 십장생문이 있다.

(4) 태극문양

태극 도형 속에는 우주 만물의 생성, 소장(消長)의 이치가 숨어 있고, 조화와 상생의 원리가 함축되어 있다. 태극의 도는 하늘의 도이면서 인도(人道)의 근원이기도 하다. 때문에 조선의 임금들은 태극의 도에 따라 선정을 베푸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다. 정전, 편전, 궐문, 누각을 가릴 것 없이 궐내 도처에 장식된 태극 도형은 그러한 정치사상의 반영이다.⁴⁾

3) 강민기, 강현숙, 윤희상, 이선재, 이숙희, 장경희, 『한국 미술문화의 이해』, (예경, 2006), p. 352.

4) 허균, 앞의 책, p. 88.

궁궐의 태극 문양은 이태극과 삼태극으로 분류되는데, 이태극은 태극기에 그려진 것처럼 두 날개가 원모양 안에서 상하로 만나 회전하는 형태로 되어있다. 위쪽의 날개를 양의(兩儀)라고 하며 아래쪽의 날개를 음의라고 하는데 양의와 음의가 서로 맞물려 회전하는 모양은 음양이 각각 개별성을 가지면서도 상호 의존하는 속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삼태극은 이태극에 날개 하나가 더해진 것으로 천, 지, 인의 삼재가 하나가 된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우주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요소인 하늘과 땅에 인간을 한 요소로 포함시키면서 인간이 천지가 하나가 된 것이며 소우주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태극 문양에서 날개, 즉 양의는 공간의 개념이고 양의의 회전 방향은 시간 개념이다. 우주는 시간과 공간이 만나 완성된 것이므로 태극 문양은 우주의 상징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태극 문양은 근정전 월대 동쪽과 서쪽의 돌계단, 근정전 계단 답도의 봉화문 보주 자리, 창경궁 명정전과 덕수궁 중화전, 창덕궁 인정전의 계단, 창덕궁 주합루, 경복궁의 건춘문, 신무문, 창덕궁 돈화문, 창경궁 홍화문, 창덕궁 대조전 등 정전, 누각, 문, 침전 등 궁궐의 도처에 장식되어 있다.

우주 자연의 존재 구조와 작용을 일정한 체계로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논리가 태극론이고 그 내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문양이 태극 도형이다. 조선의 임금들은 안으로는 천도와 합일하는 성인의 지혜를 터득하고 밖으로는 임금의 덕을 갖추는 내성외왕(內聖外王)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궁궐 도처에 장식된 태극 문양은 천도를 드러내는 상징 도형이라는 점에서 궁궐 장식 문양으로서 그 가치가 매우 높다.⁵⁾

5) 허균, 앞의 책, p. 93.

2) 조각

(1) 해치상

해치는 선악을 구별하고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전설 속의 동물이자 신수(神獸)이다. 해치상의 외형을 살펴보면 몸 전체는 동전 모양의 비늘로 덮여 있는데 위치에 따라 크기에 변화를 주면서 생동감 있게 표현되어 있으며 크고 부리부리한 눈에 주먹코를 가지고 입술 사이로 앞니와 송곳니가 드러나 있고 목에는 방울이 달려 있으며, 다리에는 불꽃모양 혹은 날개 모양의 갈기와 꼬리가 있다.

해치는 충직한 성품으로 정확한 판단력과 예지력을 가지고 있어서 언행만 봐도 그 사람의 성품과 됃됨이를 알아차리며 사람들이 서로 싸우거나 따지는 것을 보면 바르지 못한 사람을 들이받고 옳지 못한 사람, 이치에 어긋난 행동을 한 사람을 문다고 전해지고 있다.

해치상은 주로 궁궐의 문 앞에 세워졌으며 안전을 지키는 상상의 동물로 여름에 물가에 사는 동물로 알려져 있어 고종 때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풍수적으로 불의 기운이 강한 관악산을 마주보고 있는 경복궁을 보호하기 위해 세워졌다. 우리나라는 해치를 통해 수도 한양을 지키는 의미를 담고 있다.⁶⁾ 해치의 권위 있는 자태 뒤에는 법과 정의에 따라 광명정대한 정치를 실현하고자 했던 조선왕조의 정치철학과 요순의 정치를 이 땅에 펼치려 했던 조선 임금의 원대한 이상이 숨어있다.⁷⁾

6) 해치 서울 사이트 참고.

7) 허균, 앞의 책, p. 14.



<그림 4> 광화문 앞의 헤치상

(2) 사신상

세종 때의 천문학자 이순지(李純之)가 편찬한 우리나라 최초의 천문학 서적인 《천문유초(天文類抄)》를 보면 하늘을 동방, 서방, 남방, 북방과 중궁(中宮)으로 나누고 동물모양으로 28수 별자리를 형상화 했다.⁸⁾ 우주 질서와 동서남북의 네 방향을 지키는 상징적인 동물들로 각각 동쪽은 청룡(靑龍), 서쪽은 백호(白虎), 남쪽은朱雀(朱雀), 북쪽은 현무(玄武)를 배치하였다.

사신은 이미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부터 아름다움을 뽐내며 우리 문화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으며 경복궁의 남쪽 문인 광화문에는 주작이, 동쪽 문인 건춘문에는 청룡이, 서쪽 문인 영추문에는 백호가, 북쪽 문인 신무문에는 현무가 그려져 있다. 또한 경복궁의 근정전 월대에도 방위에 따른 사신상이 조각되어 있다.⁹⁾ 궁궐 내의 사신도, 사신상들은 공간적 세계를 구현하면서 궁궐과 나아가 나라의 동서남북을 지키는 방위신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8) 허균, 『사료와 함께 새로 보는 경복궁』, (한림미디어, 2005), p. 49.

9) 문화재청 경복궁 사이트 참고.



<그림 5> 경복궁 근정전 월대 사신상, 왼쪽부터 청룡, 백호, 주작, 현무

(3) 십이지신상

십이지신(十二支神)은 시간과 공간성이라는 두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십이지란 간지(干支) 가운데 열둘, 곧 자(子), 축(丑), 인(寅), 묘(卯), 진(辰), 사(巳), 오(午), 미(未), 신(申), 유(酉), 술(戌), 해(亥)를 가리킨다. 십이지신은 이 십이지를 형상화한 동물들로 사람들이 기르거나 관념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쥐, 소, 범,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를 말한다. 십이지는 방위와 시각을 나타내는데 많이 쓰였으며 방위를 나타낼 때는 자가 북, 오가 남을 가리킨다.¹⁰⁾ 일반적으로 탑이나 부도에 장식되는데 경복궁 근정전의 십이지상은 생활공간에 배치된 유일한 예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십이지신상은 시간과 계절의 흐름에 따라 태동, 성장, 성숙하는 우주 자연의 변화 원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며 그 중심축을 북극성으로 하면서 왕은 모든 별을 다스리는 북극성 같은 존재로 여겨졌다.

10) 홍순민, 『우리 궁궐 이야기』, (청년사, 2000), p. 145.

3) 건축 및 조경

(1) 건축

우리나라는 사계절의 뚜렷한 변화와 고유의 지형 등을 배경으로 독특한 건축문화를 이룩하여 왔다. 지세를 존중하여 거스르지 않으며 자연에 순응하면서 조화시키는 슬기를 터득하고 불교와 유교사상, 풍수지리 등의 인문적 요인들은 건축의 입지에서부터 배치, 그리고 형태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 특유의 조형성을 발전시킨 근간이 되어왔다.

우리의 건축은 나무와 돌, 그리고 흙 등을 주재료로 하여 이들을 적절히 가공하여 사용함으로써 목조건축의 형태를 이루게 된다. 이러한 전통적인 목조건축의 특성은 매우 다양하며 특히 공포구조와 기둥의 배흘림, 안솔림, 솟음 등의 의장 수법과 지붕의 처마곡선 등이 어우러져 우리의 독특한 전통적 조형언어를 창출하게 된다.

특히 고궁은 임금과 그의 가족, 그리고 이들을 보필하면서 통치를 수행하는 군신들을 위한 업무 및 생활공간으로 이루어지는데 궁궐건축은 지배자의 절대권위를 상징적으로 표출해야 하므로 정전을 중심으로 정연한 좌우대칭형의 배치를 이루며 구성된다.¹¹⁾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가 형성, 발전되고 왕권이 강화됨과 동시에 왕의 거처는 대개 성을 주위에 둘러 외부세계와는 구별하였고 건물도 매우 장엄하게 만들어 그 권위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따라서 궁궐은 신전이나 종교건축과 더불어 위엄과 권위를 상징하고 규범과 격식을 갖춘 그 시대 최상의 건축이라 할 수 있다.¹²⁾

11) 강민기, 강현숙, 윤희상, 이선재, 이숙희, 장경희, 『한국 미술문화의 이해』, (예경, 2006), pp. 260-261.

12) 위의 책, p. 271.

(2) 조경

우리의 조경은 비정형적이고 곡선적이며 자연성과 신비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을 자연의 일부분으로 생각하는 한국인의 자연관은 정원 등의 조경기법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도교의 자연에 대한 심상을 표현하는 방향으로 그 원리가 도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우리의 전통조경은 인간의 손에 의한 인위적이고 인공적인 방법을 배제하고 자연 상태 그대로를 유지하면서 그 상황에 동화되고자 하는 사고를 우선으로 하여 비록 사람이 만들었기는 하나, 마치 하늘이 자연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이 느껴지도록 하는 것에 그 목표를 두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자연 속에 인공적 조형물을 설치함에 있어서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자연과 동화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또한 인차(因借)는 전통조경 구성 원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 인은 지세와 지형 및 주어진 공간적 여건과 특성에 따라 이를 잘 활용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차는 차경(借景)을 말하는 것으로서 건축물 간의 적당한 안배와 건축과 대지 내의 조경이 조화를 이루도록 만들되, 원경(遠景), 근경(近景), 양경(仰景), 부경(俯景) 등의 모든 시각적 경관은 위치와 계절 등의 공간과 시간의 양 방향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¹³⁾

전통조경의 구성요소로는 지세, 건물, 화목, 수천, 연못, 괴석, 가산, 담장, 기물, 보도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이 주변 환경과 적절히 조화되고 적재적소에 위치함으로써 조경의 한 요소 또는 전체가 조경의 요소로 인식된다.

13) 강민기 외, 앞의 책, pp. 335-336.



<그림 6> 경복궁 경회루



<그림 7> 경복궁 향원지와 향원정



<그림 8> 동궐도, 국보 제249호, 576×273cm, 고려대학교박물관, 동아대학교박물관 소장

4) 기타 장식적 요소

생활공간을 아름답고 뜻 깊은 공간으로 조성하려는 미화 장식의 손길은 대비전 담장 등 개방된 곳에서부터, 왕세자가 독서하고 휴식하는 곳이나 궁중 나인들이 드나드는 뒤뜰의 은밀한 곳에 이르기까지 미치지 않은 데가 없었다. 베풀어진 장소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지만 문양 속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특징은 생명의 지속, 안락과 풍요라는 인간의 원초적 욕망과 더불어 정겨움과 순정을 사랑하는 한국인의 미의식이다.

(1) 담장 장식

화려한 담장 장식들은 풍부한 내용으로 하나하나 즐길 수 있는데 각각 염원하는 의미가 담긴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그 문양은 소나무, 매화, 국화, 모란, 대나무, 석류 등과 같은 화초 문양과 거북문, 석쇠문, 체문, 만자문, 샅자리문, 병열문 등과 같은 벽사 문양, 그리고 ‘壽’(수), ‘樂’(낙), ‘男’(남), ‘貴’(귀), ‘富’(부)자와 같은 길상 문자 등으로 다양하다.

경복궁의 자경전 담장은 화초담, 꽃담으로 불리우며 매화, 국화, 모란, 대나무, 석류 등 장식 문양이 가장 많고 아름답게 표현되었다. 자연물과의 조화를 상징하는 화초장식과 더불어 오복을 누리기를 염원하며 장수를 상징하는 귀갑문, 나쁜 기운을 막아내는 숫대살문 등과 같은 벽사 문양, 그리고 하나의 글자가 네모난 틀 속에 채워진 형태의 길상 문자를 새겨 넣었다.

창덕궁 낙선재, 상량정, 대조전 주변 담장도 장식이 풍부하다. 벽사 문양과 오복의 첫 번째, 두 번째로 꼽히는 ‘壽’(수)자와 ‘富’(부)자를 작은 타일로 짜맞춰 넣었으며 붉은 색의 국화형 꽃을 문자와 문자 사이에 배치하여 담장의 생기를 불어 넣었다. 또한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樂’(낙), ‘男’(남), ‘貴’(귀) 등의 글자를 장식하기도 했다.¹⁴⁾

14) 허균, 앞의 책, pp. 162-169 참조.



<그림 9> 경복궁 자경전 꽃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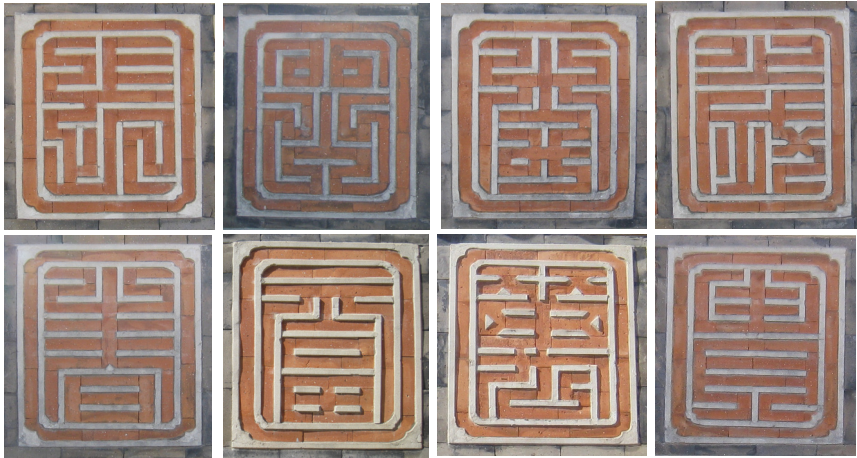
<그림 10> 창덕궁 낙선재 꽃담



<그림 11> 경복궁 자경전 꽃담 장식



<그림 12> 담장의 길상문자 장식



<그림 13> 담장의 벽사문양 장식

(2) 굴뚝 장식

남향을 위주로 하는 우리나라 건축 특징으로 보아 후원은 어두워지기도 했으나 굴뚝을 장식함으로 밝고 정겨운 공간으로 만들었다. 굴뚝 장식도 담장의 장식과 같이 여러 가지 기원을 담아 화초 문양, 벽사 문양, 길상 문양, 그리고 십장생을 표현하였다.

대표적인 굴뚝 장식으로 경복궁 자경전 십장생 굴뚝을 들 수 있다. 불로장생을 상징하는 십장생(해, 구름, 물, 바위, 산, 소나무, 불로초, 학, 사슴, 거북)과 더불어 연꽃, 대나무, 국화, 포도 그리고 위와 아래에 길상을 의미하는 학, 벽사를 의미하는 귀면, 불가사리를 부조하여 장식하였다.

경복궁의 교태전 아미산 굴뚝은 보물 제 811호로 모양이 세련되고 장식도 아름다우며 6면의 기둥 위에 ‘연가(煙家)’라고 하는 기와지붕이 올라가 있는 모양이다. 벽을 다듬어 쌓고 가장 위쪽에는 고사리 문양을, 그 아래에 귀면, 봉황, 학을 장식하였으며 다시 그 아래에는 직사각형의 하얀 화면을 만들어 국화, 모란, 매화, 소나무, 대나무, 나비 등을 새겨 넣었다. 또한 맨 아래에는 불가사리를 조각하여 배치하였다.

창덕궁 회정당 후원의 굴뚝은 그림과 문자 문양의 혼합 형태로 다른 굴뚝과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벽돌을 사각 기둥으로 쌓아 코끼리, 사슴, 학, 기린 문양이 각 면에 부조 되어있으며 문자 문양이 두 글자씩 네 면에 새겨져있다.

또한 창덕궁 대조전 후원 굴뚝에는 기린 문양이 장식되어 있으며 낙선재 후원 굴뚝에는 글자 문양을 새겨 넣었다. 이와 같이 굴뚝의 다양한 장식은 문양을 통해서 길상과 만물의 덕이 영원하고 부귀, 안녕, 장수를 누리기를 바랐던 조선 여인들의 염원과 더불어 생활공간과 후원을 아름답게 해주고 있다.



<그림 14> 경복궁 교태전 후원 아미산 굴뚝



<그림 15> 경복궁 자경전 후원 십장생 굴뚝

2. 고궁 문화재의 미술교육적 가치

우리나라에는 조선의 수도였던 한양, 지금의 서울에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경운궁), 경희궁이라는 5대 고궁이 있다. 고궁은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비교적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으면서도 접근하는 방식과 관심의 방향에 따라 다양한 미적, 문화적, 역사적 의미를 읽어낼 수 있는 대상이다. 고궁은 단순히 조선시대의 사람들이 살았던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예술이 총체적으로 집약된 문화유산이다.

고궁의 미술교육적 가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궁은 회화, 조각, 장식, 건축, 조경의 각 분야에 걸쳐 미의 요소들이 담긴 중요한 미술 교육적 사료이다.

고궁에는 단청의 아름다움,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은 문양, 일월오봉도, 조선왕조 의궤를 비롯하여 다양한 회화 작품들이 남아 있다. 조각의 경우 표정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해태와 사신상, 12지상 등이 뛰어나다. 장식에 있어서도 꽃담, 문양, 십장생 굴뚝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실용적이고 섬세한 예술성과 뛰어난 솜씨가 담겨있다. 또한 모든 건물들이 주변의 지형에 어울리도록 설계되어 매우 정겹고 아름답다. 조그만 정자와 나무, 숲, 개울, 바위들이 어우러진 후원의 아름다움은 고궁의 가장 큰 매력이기도 하다. 특히 창덕궁과 창경궁에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인공을 최대한 줄이면서 생활공간을 아름답게 꾸미려는 한국 정원의 특색이 전형적으로 발휘되어 있다.¹⁵⁾ 이러한 작품들은 중요한 역사 기록문화이며 예술품으로 그 가치가 높다.

둘째, 고궁의 미술품을 통하여 우리 전통의 미의식을 학습할 수 있다.

고궁과 그 속의 미적 요소들을 통해서 절제미, 여백미, 형태미, 실용미, 공간미, 자연미 등 우리의 전통적 미의식을 알 수 있다. 우리의 조형의식은 자

15) 한영우, 김대벽, 『조선의 집, 동궐에 들다』, (열화당, 효형출판, 2006), p. 199.

연에 순응하고 자연과 조화된 삶의 추구에 바탕을 두고 있다. 자연에서 주어진 재료를 가능한 한 인위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자연스럽고 대범하게 표현하면서 도상이나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담백한 표현을 하고 있다. 단순하면서도 깊은 고요가 깃들여 있으며 해학적인 아름다움과 크기와 재료, 특성에 있어서도 인간을 중심으로 하여 인간다움을 강조한다.

또한 아담하고 균형 있는 선과 색, 형태의 조화,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면서 재료가 지닌 물성을 최대한 살리고 인공적인 표현과 기교를 절제하여 표현한다. 고궁 문화재 속에는 이러한 요소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형태, 색채, 공간 면에서 균형과 비례의 조화를 중시하고 자연주의 미학을 추구하는 우리만의 미적 특성을 학습할 수 있다. 고유의 미의식을 학습하는 것은 우리 미술 문화의 가치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며 계승할 수 있는 안목과 능력을 길러준다. 또한 오늘의 세계 미술 문화를 비판적으로 읽고 이해하며 새로운 미술 문화를 창조하는 원동력이 된다.¹⁶⁾

셋째, 당대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문화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만들어낸 산물이라고 할 때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이 깃들여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대의 정신과 사회현상이 반영되어 있다. 그 시대의 요구와 사람들의 생각으로 만들어졌기에 그 시대의 문화유산을 통해 동시대 사람들의 생각을 읽어내고 시대를 짚어 볼 수 있다. 고궁 문화재에는 이 땅의 자연과 우리 민족의 자연관, 인생관, 우주관을 중심으로 형성된 것이다. 자연과의 조화, 생명 존중, 성리학, 불교 등 그것이 형성되고 만들어지는 구성 원리와 세계가 깃들여 있기에 학생들로 하여금 세계관과 가치관을 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문화적 배경과 조형의식, 사상에 대한 이해를 통해 미술 문화를 이해하는 기초를 형성한다.¹⁷⁾

넷째, 미적 체험이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수 있다.

16) 이성도, 김혜숙, 김서진, 손명선, 『전통미술 문화교육』, (미진사, 2005), p. 18.

17) 이성도 외, 앞의 책, p. 116 참조.

학생들은 미술교육을 활용한 고궁 현장에서의 교육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문화재 속에서 다양한 전통미술을 접하고 문화재의 가치를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고궁은 문, 꽃담, 굴뚝, 계단 하나하나까지도 섬세한 예술적 미감을 느낄 수 있는 장소이다. 학생들은 회화적 요소, 조각들, 의미가 담긴 장식들, 건축과 자연환경과의 조화, 조경 등에서 직접적으로 느끼면서 미적 대상을 발견하고 정서를 풍부하게 할 수 있다.

더불어 미에 대한 풍요로움뿐만 아니라 세상을 보는 안목, 역사를 보는 눈을 가질 수 있으며 조형적 요소의 아름다움을 단순히 감상하는 것에서 나아가 문화의 우수성까지도 학습할 수 있다.

다섯째,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우리 문화와 세계문화에 대한 올바른 안목을 길러줄 수 있다.

고궁을 통한 미적 체험으로 생겨난 미적 안목은 미적 감수성과 가치관을 일깨워 주고 생활 속에서 미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준다. 미술작품과 동시대의 정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판단하여 우리의 역사와 문화적 맥락에서 주체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우리의 미술 문화뿐만 아니라 세계 미술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감상하며 향유할 수 있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문화적 안목까지 길러준다.¹⁸⁾

이와 같이 고궁에서 우리 예술과 문화, 그리고 역사를 보고, 느끼고, 이해하며 배울 수 있다면 고궁은 소중한 우리의 예술적, 역사적 현장이자 우리 문화유산이며 종합 미술 교육의 가장 가치 있는 장소이다. 또한 고궁 문화재 현장에서 미술 교육을 활용한 문화재 교육은 전통 문화 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미술 문화를 창조하는 기반이 된다.

18) 이성도 외, 앞의 책, p. 21.

Ⅲ. 현행 미술교육과정에서의 문화재 영역

본 내용에서는 2013년 새로 개정된 미술교육과정에서 중학교 미술 10종 교과서에 나타난 문화재 관련 이미지와 내용을 찾아 미술에서 문화재 관련 교육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하는 고궁 문화재가 미술교과서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1. 미술교과서에서의 문화재관련 교육 현황

2013년 3월부터 적용되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주)교학도서, (주)금성출판사, 두산동아, (주)미래엔, 미진사, 비상교육, (주)아침나라, 천재교과서, 천재교육, 형설출판사의 10종 미술 교과서가 출판되었다. 체험, 표현, 감상으로 각 영역별 특성을 분류하고 대단원과 소단원내에서 전통미술을 비롯하여 문화재 관련 이미지를 찾아 교육내용을 분석하여 표로 작성하였다. 교과서별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1) (주)교학도서

<표 1> (주)교학도서 문화재관련 교육 현황

영역	단원	문화재명	내용
체험	자연과 미술	석류 청자모양 주전자	자연과 조화된 예
		아미산 굴뚝	
표현	풍경 속으로	금강진도	원근법 설명을 위한 이미지
		옥순봉도	
	다양한 인물의 표현	윤두서 자화상	인물화의 예

	다르게 보기	월하정인	학생 작품과 비교를 위한 원작	
	떡과 색의 세계	인왕제색도	떡 사용의 예	
		산차조기와 사마귀	전통 회화 종류 설명을 위한 이미지	
		굽는 개		
	삶과 소망을 담은 그림	과적도	풍속화 설명을 위한 이미지	
		기와 이기		
	우리의 전통색	단청	오방색의 예	
	전통회화 표현 기법	홍백매도	사군자 설명을 위한 이미지	
		노근묵란		
		목국		
		목죽팔곡병		
	서예의 기본	훈민정음 해례본	판본체 설명을 위한 이미지	
		남계연담	궁체 설명을 위한 이미지	
		철인왕후 어필	흘림체 설명을 위한 이미지	
	전각의 아름다움	부작란도	전각의 예	
	흙과 불의 조화	분청사기 철화 연지	도자기 장식 설명을 위한 이미지	
		조어무늬 장군		
		청자 상감 운학무늬 매병		
		분청사기 인화 국화무늬 병		
		청자 모란 넝쿨무늬 호리병모양 주자		
감상	우리나라 미술 탐험	울주 천전리 암각화	선사시대 미술의 예	
		영일 칠포리 암각화		
		초기 철기 붉은 경질 토기 목잔		
		농경무늬 청동기		
		계룡산 상신리 마을 입구 선돌		
		수렵도		고구려시대 미술의 예
		무용도		
	현무도			

	금동 연가 7년명 여래 입상	
	고구려 귀면문 와당	
	무령 왕릉 왕비 금제관식	백제시대 미술의 예
	부여 봉황무늬 전돌	
	능산리 벽화고분	
	부여 정림사지 5층석탑	
	미륵사지 석탑	
	첨성대	
	천마도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	
	기마 인물모양 토기	
	금관총 금관 및 금제 관식	
	석굴암 본존상	통일신라시대 미술의 예
	성덕 대왕 신종	
	다보탑	
	석가탑	
	경주 포석정지	
	발해 석등	발해시대 미술의 예
	발해 연화무늬 와당	
	발해 영광탑	
	발해 치미	
	이불명좌상	고려시대 미술의 예
	청자 상감 운학무늬 매병	
	부석사 무량수전	
	아미타삼존도	
	사자새김 손잡이 향로	
	선운사 도솔암지	
	마애여래좌상	조선시대 미술의 예
	영통동구도	
	홍인지문	
	청자 백자 송죽무늬 항아리	
	원각사지 10층 석탑	

		금동대향로	백제시대 미술 설명을 위한 이미지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신라시대 미술 설명을 위한 이미지
		감은사지 3층 석탑	통일신라시대 미술 설명을 위한 이미지
		고려청자 사자형 뚜껑 향로	고려 시대 미술 설명을 위한 이미지
		청자 동화연화무늬 표주박모양 주전자	
		청자 상감연지원앙무늬 정병	
		안동 봉정사 극락전 내부 가구와 단집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처마와 편액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경천사지 10층 석탑	
		분청사기 인화무늬 병	
		백자 상감 초화무늬 편병	조선 시대 미술 설명을 위한 이미지
	고사관수도		
	몽유도원도		
	백자 철화 새끼무늬 병		
	목포도도		
	달마도		
	단오풍정		
	금강전도		
	백자 달항아리	문화재 보존 설명을 위한 이미지	
대궐도			
문화유산 발전 방안 찾기	서산 마애 삼존상	우리나라 세계 문화 유산의 설명을 위한 이미지	
	종묘		
	해인사 장경판전		
	창덕궁		
	수원 화성		
	경주 역사 유적 지구		
	강화, 화순, 고창		
	고인돌군		
조선 왕릉			
광화문			

(주)교학도서의 미술교과서는 체험, 표현, 감상영역에서 다양한 문화재를 다루고 있으며 많은 문화재가 단원과 주제의 설명을 위한 이미지로 제시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고궁 관련 도판은 체험 영역의 자연과 미술단원에서 ‘아미산 굴뚝’과 감상 영역의 문화유산 발전 방안 찾기에서 ‘창덕궁’을 찾아볼 수 있다.

2) ㈜금성출판사

<표 2> ㈜금성출판사 문화재관련 교육 현황

영역	소단원	문화재명	내용
체험	자연과 호흡하는 삶	창덕궁의 정자	자연을 고려한 환경의 예
	색과 함께	성암사 대응전의 단청	오방색의 활용 설명을 위한 이미지
		강서대묘 사신도	오방색의 상징과 의미 설명을 위한 이미지
표현	표정이 있는 인물	미인도	인물화의 예
		서당	
		월하정인	풍속화의 예
	살아있는 정물	책거리	정물화 화면 구성 설명을 위한 이미지
	시선이 머무는 풍경	인왕제색도	산수화 설명을 위한 이미지
	일품의 먹향	한강조주도	농담과 여백 설명을 위한 이미지
		유압도	육법화론 설명을 위한 이미지
		달마도	
		몽유도원도	삼원법 설명을 위한 이미지
		목포도도	삼목법 설명을 위한 이미지
		주유청강	낙성관지 설명을 위한 이미지
		꺾어	전통 회화 화제 설명을 위한 이미지
		이채 초상	
굵는 개			
원추리와 개구리			
모란도			
호접도			

		강상야박도		
		지장보살도		
		사군자	문인화 설명을 위한 이미지	
	채색의 향연	세한도	수묵화 설명을 위한 이미지	
		삼선관과도	채색화 설명을 위한 이미지	
		이금산수도		
		금강내산전도		
		예술 혼이 담긴 글쓰기	몽유도원도 발문	글자의 구성 설명을 위한 이미지
	훈민정음 해례본		판본체 설명을 위한 이미지	
	월인천강지곡			
	월인석보			
	정재무도 흘기		궁서체-정자체 설명을 위한 이미지	
	남계연담		궁서체-흘림체 설명을 위한 이미지	
	현종어필			
	인현왕후 친필 편지			
	죽로자실		서예의 변형과 확장 설명을 위한 이미지	
	신안구가			
	예서대련			
	장인의 숨결	청자 상감 운학무늬 매병	청자의 예	
		청자 어룡형 주자	분청사기의 예	
		분청사기 강화 어문 편병		
		분청사기 인화 승림 문병		
		달항아리	백자의 예	
		백자주자		
	감상	찾아 읽는 미술	영조 정순왕후 가례도감 의궤	역사가 담긴 작품의 예
			단원풍속 중 '그림 감상'	전통회화 비평 형식 설명을 위한 이미지
			관화도	
인왕산도				
모계영자도			작품 내용 분석 하기	
오이를 진 고슴도치			비유가 담긴 작품의 예	
포도도				
까치와 호랑이			동음이자의 의미가 담긴 작품의 예	
묘작도				
삼여도			고전이 담긴 작품의 예	
금궤도			일화가 담긴 작품의 예	
부석사	건축문화 설명을 위한 이미지			

		창덕궁	
	우리나라 미술	농경문 청동기	시대별 우리나라 미술 설명을 위한 이미지 제시
		빗살무늬 토기	
		강서대묘 현무도	
		금동대향로	
		정림사지 5층 석탑	
		황남대총 북분 금관	
		천마도	
		석굴암 본존 불상	
		다보탑	
		수월관음도	
		청자 상감 모란무늬	
		조롱박 모양 주전자	
		부석사 무량수전	
		경천사지 10층 석탑	
		초충도	
		화조도	
		윤두서 자화상	
		고사관수도	
		분청사기 연꽃	
		물고기무늬 병	
		나전 서류함	
		목죽도	
		수원 화성	
		박연폭포	
		연소담청	
		영통동구	
	백자 칠화 포도무늬 항아리		

(주)금성출판사의 미술교과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문화재를 다루고 있으며 감상영역에 많은 문화재의 도판이 소개되어 있다. 고궁과 관련된 도판은 감상영역에서 건축문화에 대하여 서양과 우리나라를 비교, 설명하는 학습 과정에서 창덕궁을 찾아 볼 수 있다.

3) 두산동아

<표 3> 두산동아 문화재관련 교육 현황

영역	단원	문화재명	내용
체험	생활 속 미술	고구려 연꽃무늬 막새기와	환경 속 종교와 미의식의 차이 설명을 위한 이미지
		신라 연꽃무늬 막새기와	
	아름다움의 기본, 조형 요소와 원리	부석사 무량수전	비례 설명을 위한 이미지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황금비 설명을 위한 이미지
빛과 색의 아름다움	단청	오방색 설명을 위한 이미지	
표현	나와 우리	황현 초상	서양의 작품과 비교
		윤두서 자화상	인물화의 예
	주변 풍경 엮보기	만폭동도	풍경화의 예
	일상을 담아서	기와 이기	풍속화의 예
	기억과 꿈, 상상을 담아서	몽유도원도	상상을 담은 작품의 예
	생각의 틀을 깨다	황묘농접도	원작 제시
		과적도	원작 제시
	단색으로 표현하다	세한도	수묵화의 예
		노근묵란도	
	다양한 채색 재료로 표현하다	수박과 들쥐	전통회화의 기법 설명을 위한 이미지
		미인도	전통 채색화의 예
		아미타 삼존도	
	다양한 문화를 담은 공예	책가 문방도 8곡병	
	아름다운 글씨, 서예	청자 대나무무늬 병	전통 도자기 설명을 위한 이미지
분청사기 물고기무늬 병			
백자 달항아리			
	결목연	서예 설명을 위한 이미지	
	훈민정음 해례본		

		일동장유가			
		부작란도			
		여지서			
		태조 금보			
감상	세계의 보물, 우리나라 세계문화 유산	석굴암	우리나라 세계 문화유산 설명을 위한 이미지		
		불국사			
		경주 역사 유적 지구			
		종묘			
		고창, 화순, 강화			
		고인돌			
		해인사 장경판전			
		해인사 대장경판			
		창덕궁			
		조선 왕릉			
		한국 역사 마을 : 하회와 양동			
		수원 화성			
		미술의 시작, 미술의 역사		빗살무늬 토기	시대별 우리나라 미술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한 이미지 제시
				민무늬 토기	
	반구대 암각화				
	비파형 동검				
	청동 방울				
	잔무늬 거울				
	무용총 수렵도				
	산수무늬 벽돌				
	경주 부부총 금 귀걸이				
	현무도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백제 금동 대향로				
	익산 미륵사지 석탑				
천마도					
토우 장식 긴 목					
향아리					
천마총 금제 관모					
청자 상감					
운학모란국화무늬 매병					
청자 동화 연꽃무늬					
표주박 모양 주전자					
청자 구룡형 뚜껑 향로					
석굴암 본존상					
금동제 귀면 문고리					

		장식	
		성덕 대왕 신종	
		부석사 무량수전	
		청동 은입사	
		물가풍경무늬 정병	
		경천사지 10층 석탑	
		지장도	
		경교 영습첩 중 광나루	
		인왕제색도	
		경복궁 근정전	
		화조구자도	
		동자견려도	
		세참	
		연생귀자도	
청화 백자 매죽무늬 항아리			
미술 작품 비평, 이렇게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비평 활동에 활용할 이미지	

두산동아의 미술교과서는 체험, 표현, 감상영역에 문화재가 단원과 주제의 설명을 위한 도판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고궁 관련 도판은 감상영역의 조선시대 미술에서 경복궁 근정전의 도판을 찾아볼 수 있다.

4) ㈜미래엔

<표 4> ㈜미래엔 문화재관련 교육 현황

영역	소단원	문화재명	내용
체험	자연에서 발견하기	단발령 망금강산도	비교 원작의 부분 이미지 제시
		소쇄원	자연과 인공의 조화의 예
	공간을 아름답게	부석사 무량수전	자연과 조화된 건축의 예
표현	색과의 만남	단청	전통색 활용의 예
	인물의 다양한 표현	윤두서 자화상	인물을 담은 작품의 예
		씨름도	일상을 담은 작품의 예

	정물과의 대화	기명절지화	정물을 담은 작품의 예
		책거리	
	개성이 담긴 의상디자인	월하정인	복식 설명을 위한 이미지
	공예의 이해	백제 금동대향로	공예품의 예
	흙과 불의 만남, 도자 공예	빗살무늬토기	도자 공예의 예
		청자 오리모양 연적	
		백자 청화 모란무늬 주전자	
	전통적인 조형 의식을 찾아서	강산무진도	전통 미의식이 담긴 작품의 예
		신선도	산수화의 예
		금강전도	옛 그림 따라그리기 이미지 제시
	수목표현	인곡유거도	수목담채화의 예
	민화의 세계	부작란도	민화의 예
		까치와 호랑이	
		‘의(義)’자 문자도	
	책가도 8폭 병풍		
문자로 표현하는 예술	몽유도원도 제발문	문자가 담긴 작품의 예	
한글의 우수성	훈민정음 해례본	한글 서체 설명을 위한 이미지	
	동국정문		
	인선왕후가 숙명공주에게 쓴 편지		
여러 가지 한자 서체	퇴도선생 필법	한자 서체 설명을 위한 이미지	
	오언절구 시문		
그림 속 문자 이야기	세한도	그림 속 문자 설명을 위한 이미지	
감상	우리나라 미술의 이해	울주군 반구대 암각화	선사시대 미술
		잔무늬 거울	
		무용총 수렵도	고려시대 미술
		금동 연가 7년명 여래 입상	
		산수문진	백제시대 미술
		남석제 불좌상	
	금제 관식		

		토우장식 목 향아리	신라시대 미술
		기마인물모양 토기	
		황남대총 금관	
		성덕대왕 신종과	통일 신라시대 미술
		비천상	
		수월관음도	고려시대 미술
		기마도감도	
		몽유도원도	조선시대 미술
		송례문	
		고사관수도	
		설중귀려도	
		동자견려도	
		풍죽도	
		인왕제색도	
		영통동구	
		계산포무도	
유압도			

(주)미래엔의 미술교과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문화재가 고루 다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문화재 활용이 가장 낮았으며 고궁과 관련된 도판과 수업은 없었다.

5) 미진사

<표 5> 미진사 문화재관련 교육 현황

영역	소단원	문화재명	내용
체험	자연과 함께하는 생활공간	경주 안압지	정원 문화 설명을 위한 이미지
		창덕궁 후원	
	우리가 쓰는 물건	청동 은입사 정병	은입사 기법 설명
		청자 상감 운학무늬 매병	상감 기법 설명
표현	색으로 말하기	경복궁 단청	오방색의 활용
	선을 따라서	달마도	선으로 표현한 작품의 예
	전통회화의 조형을	국화	문인화 설명을 위한 이미지
		매화	

	살려	목란	담채와 진채 설명
		단오풍정	
		책가도	
		몽유도원도	전통회화 설명을 위한 이미지
		야묘도추	
		배꽃 아래의 흰 제비	
		초충도	
		윤두서 자화상	
	묘작도		
	전통 서예의 멋을 살려	신안구가	한문 서예가 설명
		낭공대사백월서운탑비	
	아름다움의 비밀	불국사 백운교와 청운교의 자하문	대칭 설명
		청룡사 대웅전	비대칭 설명
		정림사지 5층 석탑	비례 설명
	보이는 대로 보기	기명절지화	정물표현 설명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 의궤 반차도		다양한 시점의 예	
책거리		다시점 작품의 예	
서당도			
감상	미술관으로 떠나는 문화산책	삼릉곡 상선암 마애여래 좌상	답사 여행의 장소의 예
	아는 만큼 보이는 미술	서간문	읽는 그림의 예
		세한도	작품 분석
		이성원 초상	부분 이미지 제시
		채제공 73세 초상	부분 이미지 제시
	미술의 경계를 넘어서	석굴암 본존불	비율 설명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미술	박연 폭포	원작 제시
		계산정거도	화폐 속 작품의 원작 제시
		초충도 병풍	
		일월오봉도	
	나도 비평가	풍설야귀인도	작가가 담긴 작품
		벼 타작	사회적 배경이 담긴 작품의 예
		연화도	그림의 내용 설명
		까치와 호랑이	
		문자도	

시대별로 보는 미술	빗살무늬 토기	시대별 우리 미술 설명을 위한 이미지 제시
	잔무늬 청동 거울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백제 금동 대향로	
	안악 제3호 무덤 벽화	
	발해 돌사자 머리	
	다보탑	
	십일면관음보살 입상	
	수월관음도	
	백자 달항아리	
	금강전도	
	미인도	
	부작란도	
	승례문	
	부석사 무량수전 종묘	건축의 흐름 설명을 위한 이미지

미진사의 미술교과서는 다른 교과서에 비교하여 감상영역에 담긴 문화재 도판의 수가 적지만 화폐 속 원작 찾기를 통한 수업, 승례문을 활용한 문화재 보존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었다.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문화재를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비상교육

<표 6> 비상교육 문화재관련 교육 현황

영역	단원	문화재명	내용
체험	마음이 끌리는 풍경	금강전도	삼원법 설명을 위한 이미지
		옥순봉도	
	개성적인 인물 표현	황현 초상	비례, 균형, 동세 설명을 위한 이미지
표현	생활과 색	단청무늬	색채 활용의 예
	먹으로 그린 그림	계	수묵화의 예
		부작란	
	굽는 개		

		사군자	사군자 설명
	흙과 불의 만남	청자 상감 운학무늬 매병	운학 무늬 설명을 위한 이미지
	여러 가지 공예	청동 은입사	다양한 기법을 활용한 전통 공예품의 예
		포류수금무늬 정병	
		나전대모 국당초무늬 염주함 화각함	
	한글 서체 쓰기	월인천강지곡	판본체의 예
		순원 왕후 어필	흘림체의 예
	한자 서체 바로 알기	진서팔곡병풍	한자 서체의 예
		주자명언	
		오언시	
감상	미술작품, 어떻게 볼까?	군학 십장생도	십장생의 상징 설명
		서당	작품 분석 하기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미술	빗살무늬토기	선사 시대의 미술
		농경문 청동기	
		수렵도	고구려 시대의 미술
		금동 연가 칠년명 여래 입상	
		강서중묘의 사신도	
		서산마애삼존불상	백제 시대의 미술
		미륵사지 석탑	
		백제금동대향로	
		기마인물모양 토기	신라 시대의 미술
		황남대총금관	
		천마도	
		분황사 모전 석탑	통일 신라 시대의 미술
		석굴암 본존상	
		다보탑	
		성덕대왕신종	
		성덕대왕신종 비천상	고려 시대의 미술
		팔만대장경	
		수월관음도	
		개성 경천사지	
		10층 석탑	
	청자 참외모양 화병	조선 시대의 미술	
	몽유도원도		
	금강내산총도		

		묘작도	
		연당의 여인	
		매화초옥도	
		십장생도	
		달항아리	
		법주사 팔상전	
		승례문	

비상교육의 미술교과서 또한 다양한 영역에서 문화재를 다루고 있으며 대부분 단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로 문화재 도판이 활용되고 있다. 고궁 문화재에 관련된 도판은 제시되어있지 않았다.

7) ㈜아침나라

<표 7> ㈜아침나라 문화재관련 교육 현황

영역	단원	문화재명	내용
표현	개성 있는 인물 표현	미인도	인물표현의 예
	생활 속의 그림	쌍검대부	일상을 담은 그림의 예
		서당도	
	풍경의 아름다움	화성능행도	삼원법 설명을 위한 이미지
		박연폭포	
		동자견려도	
		금강전도	
	표정이 있는 정물	기명절지화	정물화의 예
	전통과 미술과의 만남	인왕제색도	수묵화 설명
		고사탁족도	
		사군자 병풍	문인화와 사군자 설명
		이채 초상	수묵 담채화 설명
	민화의 멋을 되살려	까치와 호랑이	민화의 종류와 예
		십장생도 10곡병	
		화조도	
		어해도	
		책가도	
	실용의 예술, 우리	모란도	우리 공예품의 예
삼작노리개			
영친왕비 꽃장식 떨잠			
봉황무늬 보자기			

	공예	나전 경대	
		은 주전자	
		임금의 가마연	
		조족등	
		연꽃무늬 큰 벼루	
		창을 든 무인	
		진주선	
		종이함	
		도시락	
	흙과 불로 빚어낸 아름다움	달항아리	흙으로 빚어낸 작품의 예
기마 인물형 토기			
분청사기 조화 물고기무늬 편병			
청자 진사 연꽃무늬 표주박모양 주전자			
문자의 아름다움	훈민정음 해례본	한글 서체 설명을 위한 이미지	
	경운궁 현판	전각과 서각 설명을 위한 이미지	
판으로 표현하는 세상	삼강행실도	판화 작품의 예	
입체표현의 아름다움	서산마애삼존불상	조각작품의 예	
	정수사 대웅보전 꽃살문		
다양한 시각, 개성있는 표현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과 비교	
감상	우리나라 미술의 역사	빗살무늬토기	선사 시대 미술 설명을 위한 이미지
		연가 7년명 금동여래입상	삼국 시대와 불교 미술 설명을 위한 이미지 제시
		수렵도	
		현무도	
		미륵사지 석탑	
		백제금동대향로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천마총 금관	
		천마도	통일 신라 시대 미술 설명
	석굴암 본존 불상		

		성덕대왕신종	고려 시대 미술 설명
		석가탑	
		수월관음도	
		해인사 대장경판	
		부석사 무량수전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입상	
		나전 대모국 당초문	
		영주합	
		청자 상감 운학무늬	
	매병	조선 시대 미술 설명	
	경복궁 근정전		
	고사관수도		
	월매도		
	모견도		
	수박과 들쥐		
	분청사기 철화어문 병		
	채제공 초상		
	백자 청화 운룡문		
	항아리		
	단오도	우리나라의 세계문화유산 설명을 위한 이미지	
	도봉도		
	계산포무도		
	호취도		
	함께	수원화성	우리나라의 세계문화유산 설명을 위한 이미지
	보호하고	조선왕조 의궤	
	계승하는	조선왕릉	
문화유산	윤공단	작품 읽기 설명	
작품 읽기	몽유도원도		

(주)아침나라의 미술교과서는 표현영역과 감상영역에서만 문화재 도판을 활용하고 있으며 서예 단원에서 경운궁 현판, 감상영역에서 조선시대 미술의 하나로 경복궁 근정전을 들고 있다.

8) 천재교과서

<표 8> 천재교과서 문화재관련 교육 현황

영역	단원	문화재명	내용
체험	아름다움의 시작	수타사 단청과 풍정	자연과 조화된 예
	자연과의 어울림	세연정	자연과 조화된 건축의 예
	아름다움의 원리	종묘	비례 설명을 위한 이미지
표현	색의 느낌과 활용	오방장 두루마기	오방색 설명
		신선로	
	개성있는 의상 디자인	청자 상감 운학무늬 매병	원작 제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디자인	부암동 한옥	환경과 어우러진 건축의 예
	생활 속 아름다운 공예	사방탁자	전통 공예 작품의 예
		금과삼작노리개	
		활옷	
		화각함	
		황남대총금관	왕관으로 보는 금속 공예
	흙으로 만든 도자 공예	청자 기린형 뚜껑 향로	이미지 제시
	도자기의 발자취를 찾아서	빗살무늬토기	도자기의 흐름 설명을 위한 이미지
		토우장식유개고배	
		청자 진사 연꽃무늬 표주박모양 주전자	
		분청사기 철화 연지어무늬 장군	
		청화백자 운룡무늬 향아리	
청화백자 운룡무늬 향아리			
전통회화의 멋	맹호도	수목 담채화 설명	
	세입상		
	송계한담도		
	노근묵란	문인화 설명	
	매화초옥도	준법 설명	
	수월관음도	이미지 제시	
	도원문진도	진채화 설명	

		십장생도	민화의 예	
		책거리		
		만폭동도		작품 분석
		인왕제색도		인왕산과 비교
		인왕산		인왕제색도와 비교
		영통동입구도		산수화의 예
	옥순봉도			
	서예의 아름다움	남계연담	서예 작품 설명	
		월인석보	판본체 설명	
		선조 어찰	국한문 서체 설명	
전각과 서각	태조금보	전각과 서각 설명을 위한 이미지		
	보정산방			
전통을 새롭게	몽유도원도	작품 분석		
감상	미술문화는 왜 보존해야 할까	경희루	도심 속 미술 문화 설명	
		경희궁		
		덕수궁 석조전		
		덕수궁		
		창덕궁		
	미술과 기록	순조기축진찬도 8곡병	미술의 기록성	
		창경궁 궁중 연회의 한 장면		
	우리나라 미술의 이해	주먹도끼	선사 시대 미술	
		농경무늬 청동기	고구려 미술	
		금동 연가 7년명 여래 입상		
		무용총 수렵도	백제 미술	
		서산마애여래삼존상		
		정림사지 5층 석탑	신라 미술	
		천마도		
		굽은 고리 귀걸이	통일 신라 미술	
		석굴암 본존상		
		성덕대왕 신종	고려 시대 미술	
		부석사 무량수전		
		조선 시대 미술	고사관수도	조선 시대 미술
			윤두서 자화상	
	강변회음도			
	세한도			
	미술문화 나누기	금동 계미명 삼존불상	이미지 제시	
세계 문화유산을	불국사	세계의 문화유산 설명		

	찾아서		
	같은 시대 다른 문화	봄나들이	서양 작품과 비교
	어떻게 볼까	채소와 물고기가 있는 10폭 병풍 중 1폭	이미지 제시
		용도호	이미지 제시
	작품 속 숨은 지식을 찾아서	금산사 나한전의 꽃 창살	숨은 의미 찾기
		선암사의 승선교	
	미술과 박물관	경천사지 10층 석탑	박물관 속 문화재

천재교과서의 미술교과서는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고궁 문화재 관련 수업이 ‘미술 문화는 왜 보존해야 할까’를 주제로 하여 도심 속 고궁을 지도화 하여 심도있게 다루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며 학생들에게 흥미와 학습에 도움을 줄것이라 생각된다.

9) 천재교육

<표 9> 천재교육 문화재관련 교육 현황

영역	단원	문화재명	내용
체험	자연에서 느끼는 아름다움	청자 양각 죽절운 병	자연을 모티브로 한 예
	인간과 자연의 조화	창덕궁 후원	자연과 조화된 건축의 예
	조형원리의 세계	경복궁 근정전	대칭 균형 설명
	대상의 특징을 살려서	이재 초상	인물의 특징을 살린 예
	경험 속으로	단원풍속도첩 중 타작	일상을 소재로 한 작품의 예

표현	수묵, 수묵담채의 아름다움	매화서옥도	수묵화의 예
		고매서작도	
	채색의 아름다움	강세황 정면상	우리나라 채색화의 예
		기린도	
		연꽃과 잠자리	
		아미타삼존도	
	점과 획의 만남, 서예	십장생도	우리나라의 서예
		사야	
		왕복어간	전각 설명을 위한 이미지
		퇴도유묵 중 '시잠'	
	옛 생활에 담긴 아름다움	불이선란	우리나라 공예품의 예
		활옷	
		관 꾸미개	
사층 사방 탁자			
백자 끈 무늬병			
얼굴무늬 수막새			
화각함			
오방낭자			
살아 있는 전통	백제금동대향로	전통 문화가 담긴 예	
	종묘제례		
감상	미술사 이야기	고사탁족도	고사관수도와 비교
		고사관수도	고사탁족도와 비교
	미술로 본 문화	화성능행도병 중 시흥환어행렬도	작품 분석
		금동 미륵보살	
	미술 문화의 교류	반가사유상	일본 반가사유상과 비교
		서산마애삼존불상	시대별 불상과 도자기 연결하기
		백자 청화 매죽무늬 병	
		청자 음각	원작 제시
	미술 문화의 흐름	연꽃넝쿨무늬 매병	선사 시대 미술
		울주반구대 암각화	고구려 미술
		수렵도	백제 미술
		정림사지 5층 석탑	신라 시대 미술
		천마도	통일 신라 시대 미술
		성덕대왕신종	
		불국사	고려 시대 미술
		수월관음도	
청자 사자형 뚜껑 향로			
경복궁 근정전	조선 시대 미술		

		분청사기 음각	
		물고기무늬 편병	
		달마도	
		백자 청화 포도무늬	
		항아리	
녹수선경			

천재교육의 미술교과서에서는 체험영역에서 자연과의 조화를 설명하기 위한 예로 창덕궁 후원의 도판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체험영역에서 대청과 균형의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감상영역에서는 조선 시대 미술의 예로 경복궁 근정전의 도판을 활용하고 있다.

10) 형설출판사

<표 10> 형설출판사 문화재관련 교육 현황

영역	단원	문화재명	내용
체험	자연과의 대화	창덕궁 후원 부용정	자연과 조화를 이룬 예
	자연을 향한 순박한 마음	꽃과 새, 강아지	동식물이 담긴 그림의 예
		쥐가 홍당무를 파먹다	
		가지와 벌	
	그림에 담은 선비정신	달과 매화	문인화와 사군자의 설명을 위한 이미지
		난초	
		대나무	
		국화	
		대나무	
		백자청화 박쥐국화무늬 병	
		계산포무도 대홍사 꽃담	
	명절과 전통문화	단오풍정	명절과 전통문화가 담긴 작품
		청자상감운학문매병	도자 공예의 종류와 예
분청사기 박쥐모란넝쿨무늬 납작병			

		백자청화매죽문호	
표현	아름다운 우리 그림	수월관음도	우리 회화의 다양한 주제와 시대에 따른 변화 설명을 위한 이미지
		수렵도	
		인왕제색도	
		미인도	
		소림명월도	
	자연을 바라보는 시선	박생연	화가의 시선 설명을 위한 이미지
		몽유도원도	우리 회화의 표현법의 예
		백천동	준법 설명을 위한 이미지
		청풍계	
		정양사	
		금강내산총도	정선과 정선의 작품 설명
		금강내산	
	풍악내산총람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	강세황 자화상	자화상의 예
		윤두서 자화상	
	재미있는 동식물의 형태들	석수	동식물의 형태가 담긴 작품의 예
		경복궁 자경전 담장의 십장생 굴뚝	
	색으로 배우다	단청	전통의 색 설명
아름다운 문자 예술의 세계	월인석보 권8	이미지 제시	
	훈민정음	판본체의 예	
	예사서	궁체의 예	
	숙명공주의 서신에 대한 효종의 답서	흘림체의 예	
	천자문	해서의 예	
감상	현실과 이상에 대한 무명의 이야기	책거리	민화의 종류와 예
		십장생도	
		문자도	
		까치와 호랑이	
		물고기의 즐거움	
		모란도	
		도안문 책거리	
		일월오봉도	
	문화유적에 나타난 서예와 오늘날의	광개토대왕비	문화 유적에 나타난 서예의 예
		신라 진흥왕 순수비 탁본	
태사자 낭공대사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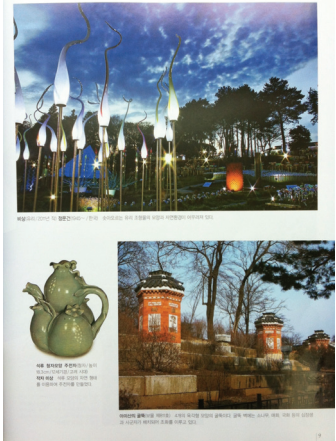

서예	탁본	글씨와 그림 설명	
	안평대군 글씨		
	화엄석경 해서체		
	청평사 문수원중수비		
	탁본		
	강세황 전서체		
	완당선생초상		
	예서대련		김정희 작품 설명
	찬전		
	지란병분		
	부작란도		
	세한도		
한국 미술사	빛살무늬토기	선사 시대 미술	
	현무도	고대 미술	
	안악3호무덤 주인공 초상		
	금동 용봉산 향로		
	서산 마애 삼존 불상		
	미륵사지 석탑		
	금동 미륵보상		
	반가사유상		
	천마도		
	금관총 금관		
	석굴암 본존상		
	석가탑	고려 미술	
	부석사 무량수전		
	청자상감		
	운학모란국화무늬 매병	조선 미술	
	고려 팔만대장경판		
	백자대호		
	고사관수도		
	달마도		
	법주사 팔상전		
	월하정인		
	영통동구		
	맹견도		
호취도			
증청풍란			
파적도			
경회루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술교과서에서는 다양한 우리 전통 미술과 문화재의 이미지와 내용이 수록되어있다. 그러나 단원을 뒷받침해주는 이미지로 제시되거나 기법, 종류 등의 설명을 위한 이미지로 제시되고 있을 뿐이다.

‘문화재’ 혹은 ‘문화유산’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문화재를 다루고 있는 교과서는 (주)교육도서의 ‘문화유산 발전 방안 찾기’, 두산동아의 ‘세계의 보물 우리나라 세계 문화유산’, 아침나라의 ‘함께 보호하고 계승하는 문화유산’ 단원이 있으며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문화재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화재에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단원은 주로 감상 영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마찬가지로 단원의 주제에 따른 설명적 이미지로 제시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소개되고 있는 문화재 관련 내용은 이해 수준에 그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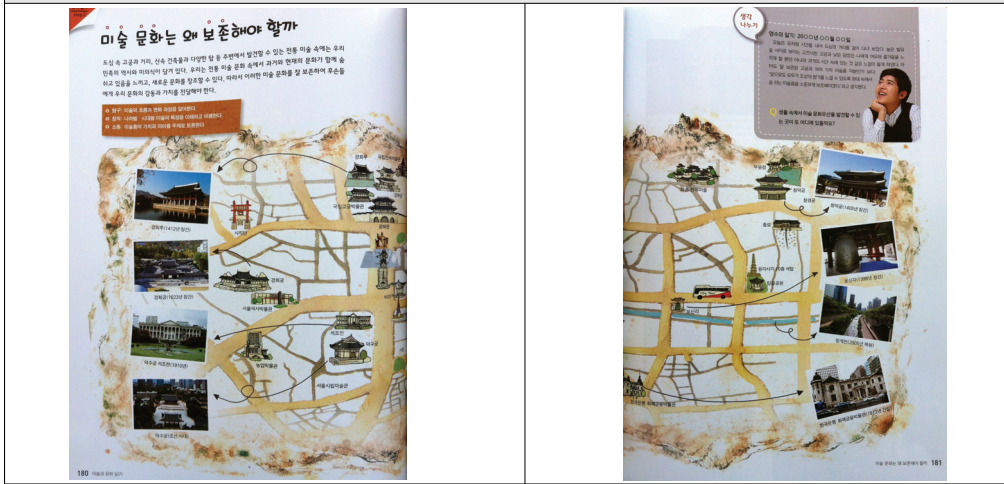
2. 미술교과서에서의 고궁 문화재 활용 교육 현황

<표 11> 교과서별 고궁 문화재 활용 교육 현황

(주)교학도서	(주)금성출판사
	
<p>아름다운 자연과 인공물의 조화를 주제로 자연물과 인공물이 조화를 이룬 예로 경복궁의 아미산 굴뚝 이미지를 제시하였다.</p>	<p>건축 문화 읽기에서 서양건축물 베르사이유 궁전과 우리나라 건축물 창덕궁을 비교 감상하고 있다.</p>

두산동아	
	
<p>감상영역에서 우리나라 세계문화유산을 설명하며 창덕궁을 소개하는 이미지로 제시되었다.</p>	<p>감상영역에서 시대별 미술을 다루며 조선시대 미술의 하나로 경복궁 근정전의 이미지를 제시하였다.</p>

천재교과서



미술 문화는 왜 보존해야 할까를 주제로 하여 도심 속 고궁과 거리, 건축물 등을 지도 형식으로 제시하고 전통 미술에 담긴 역사, 미의식을 이야기하였다.

또한 전통 미술 문화 속에서 과거와 현재의 문화가 함께 숨쉬고 있음을 느끼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 할 수 있음을, 잘 보존하여 후손에게 우리 문화의 감동과 가치를 전달해야함을 안내하고 있다.

천재교육

03 인간과 자연의 조화

인간과 자연이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어디일까?

경복궁 정전으로 세워진 정자는 어느 정자라고 하는가? 그리고 정자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정자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그리고 정자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정자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그리고 정자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03 조형 원리의 세계

미술 작품은 왜 아름다워 보일까?

인간의 미의식은 왜 아름다워 보일까?

인간의 미의식은 왜 아름다워 보일까?

인간의 미의식은 왜 아름다워 보일까?

조선 시대의 미술

조선 시대의 미술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조선 시대의 미술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조선 시대의 미술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인간과 자연이 만날 수 있는 장소로 정원을 주제로 하여 창덕궁 후원을 설명하였다.

균형과 비례를 주제로 한 단원에서 왕궁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한 엄격한 대칭 균형 건축물의 예로 경복궁 근정전을 설명하였다.

감상영역에서 조선시대 예술의 한가지 예로 경복궁 근정전의 이미지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중학교 10종 미술교과서 전체를 분석한 가운데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고궁에 관련된 내용이 담긴 부분은 천재교과서의 ‘미술문화는 왜 보존해야 할까’ 단원에서 다루고 있다. 도심 속 고궁 문화재를 지도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소개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 아쉽다. 이처럼 체험, 표현, 감상 영역에 있어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재 현장교육과 연계되어있거나 미술교육을 활용하여 문화재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학습 내용은 극히 적다. 이런 현실 속에서, 세계 속 우리 문화유산을 알고 보존해야하는 중요성을 깨닫도록 교육하는 것에 있어서 단순히 감상영역에서 이해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효과적인 문화재 교육을 위해 문화재 현장에서, 그리고 미술교육의 영역 전반에 걸쳐 폭넓게 이루어져야한다.

IV. 미술교육에서의 고궁 문화재현장 활용 방안

이 장에서는 미술 교육을 활용한 고궁 문화재 현장에서의 교육 계획을 미술교육과 고궁 문화재교육의 연계 학습 기본 방향, 내용, 방법, 교사의 역할, 고궁 현장에서의 미술 수업 활동지 제작 아이디어와 활동지 등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1. 미술교육과 고궁 문화재교육의 연계 학습 방향

문화재는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져 빚어낸 것으로 사람이 주체가 되고 자연 또는 자연물이 객체가 되어 이루어진 문화의 산물이다. 전통에 따라 문화재에도 민족정서와 가치관이 들어있게 된다. 이처럼 우리 고유의 정신, 사상, 철학, 종교, 지혜, 생활 풍속을 비롯하여 멋, 미의식, 창의성 등 다양한 요소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에 문화재는 큰 의미가 있으며 각종 회화, 조각, 공예품과 건축물을 통해 전통의 기술과 생활 문화도 엿볼 수 있기에 가치를 지닌 자료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문화재는 단순한 유물이나 미술품이 아니라 전통의 산물이자 인류의 소중한 자산이다. 또한 위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며 다시 아래로 물려주어야 하는 것이므로 보존 가치가 높은 것이다. 현재 우리의 모습과 움직임도 훗날 문화재가 될 수도 있으므로 문화재는 현대를 살아가는데 특별한 가치와 의미를 줄 수 있다.

특히, 우리의 다양한 문화재 중 고궁은 종합 미술 교육의 장소라 할 수 있다. 고궁의 예로는 조선시대 5대 궁궐인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경운궁), 경희궁을 들 수 있다. 궁궐 안에는 일월오봉도와 단청, 다양한 문양 등과 같은 회화 및 문양 요소, 해태상과 동물상, 사신상과 같은 조각 요소가 있다. 또한 궁궐의 배치와 건물 자체의 아름다움과 우리 문화의 독특한 후

원을 보여주는 건축과 조경적 요소, 꽃담과 굴뚝을 장식해 놓은 장식적 요소 등 다양한 조형적 요소들 속에서 자연소재로 지어진 건물과 배경의 자연이 어우러지는 자연미, 공간미를 느낄 수 있다. 그 밖에도 지붕과 기둥 그리고 건물에서 느껴지는 비례와 처마가 만들어내는 선의 흐름 등의 형태미, 단청색의 아름다움, 절제미 등 다양한 미의식이 고스란히 녹아들어있다.

이처럼 문화재는 학습자료로서도 중요하지만 학습 과정에서 미의식이나 시대정신을 이해하며 역사에 대한 상상력과 다양한 미적 가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미적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그러므로 문화재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고 보존의식을 갖도록 하여 창조적으로 계승, 전달하며 새로이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일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문화재는 미술과도 깊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다양한 문화재교육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미술교육을 활용해야 한다. 제 7차 미술과 교육과정에 따르면 미술은 느낌과 생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시각 이미지를 통해 다른 사람과 자신의 세계를 이해하는 예술의 한 영역이며 그 시대의 문화를 기록하고 반영하기 때문에 미술 문화를 통하여 과거와 현대를 이해하고 나아가 문화의 창조와 발전에 공헌 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미술 교과 교육의 목표는 미적 감수성과 직관으로 대상을 이해하고 삶을 창의적으로 향유하며 미술 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는데 있다고 하였다. 교육의 중점으로 미술품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고 애호하는 태도와 미적 안목을 기르도록 하고 미술 문화를 역사적, 미술사적 관점으로 이해하며 전통미를 계승, 발전, 보호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또한 다양한 문화의 가치를 이해하고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 한국인의 정체성을 확보한다는 내용으로 문화유산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¹⁹⁾

이와 같이 시대적, 사회적 배경이나 민족성, 역사성 등의 맥락 속에서 과거

19) 서울시 교육청 교육과정 사이트 참조.

의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계승하며 현재의 문화를 건전하게 형성하고 나아가 미래의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미술교육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이다.

무엇보다 미술교육은 학생들이 그리고, 칠하고, 조각할 기회를 주고 작품을 보는 활동을 통해 작품을 이해하고 비평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미술교육이 가진 독특한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교육은 생산물을 수반한다.

미술교육은 학생들이 문제를 이해하고 새로운 정보를 발견하는 기술을 습득하게 하면서 동시에 만들어지기 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그들 자신의 발명품을 창조하도록 허용한다. 또한 그 생산물은 학생의 재량으로 언제든지 변화되거나 완성될 수 있으며 나아가, 학생들이 발전시키고 있는 산물은 맞거나 틀리지 않다. 여기에서 학생들은 예술적 생산물의 창조를 통해 주어진 것을 넘어서 생각하고 상상하면서 자신에 의해 결정되고 실현되는 가능성과 변화의 주체인 자기 자신의 중요성을 경험하게 한다.

둘째, 미술교육은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고 공감하게 한다.

미술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감정을 느끼고 표현할 기회와 다른 이들의 감정을 인식하고 관심을 갖고 소통하는 매개와 기회를 제공한다. 즉 다른 과목과 달리 감정을 다루고 이를 구현하고 전달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학생들은 작품을 통해서 감정이 소통된다는 것을 느끼고 자신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인지하고 고려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공감이며 예술 작품과 조우하면서 이해심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셋째, 미술교육은 다양성을 인정한다.

학생들의 결과물이나 탐구 과정, 상상한 세계들에 대해서 옳고 그름 없이 그 다양성을 인정한다. 이러한 특징은 학생들로 하여금 같은 대상에 대해서

도 다양하지만 동등한 가치를 지닌 실행 가능한 방식들이 있다는 것, 비록 그들의 시각이 다른 이들과 다르다 해도 세상을 이해하는 여러 방식들을 인식하고 그 차이에 흥미를 갖고 존중하도록 돕는다. 또한 탐구의 폭을 넓혀 주며 훌륭하고 밀도 있는 사고를 가능하게 한다.

넷째, 미술교육은 탐구와 반성, 평가 기술을 발전시킨다.

학생들은 작품 제작 과정에서 문제나 도전을 설정하고 과정을 조정하면서 그 생산물에 자신의 사고가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의 탐구의 범위와 중요성, 과정을 평가하고 방향을 설정하고 진전시키는 능력을 경험한다.

다섯째, 미술교육은 삶과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미술교육은 그 시대를 반영하면서 과거에서 현재까지 각 시대와 사회의 문화를 표현하고 기록하고 전달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시간과 장소를 가로질러 전해지기 때문에 다른 시간과 상황에 살았던 사람들을 연결시켜 준다. 학생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주변을 살피고 이 연관성을 느끼고 참여하게 되면서 사회적 책임과 행동에 대한 의미를 자각하도록 도와준다.²⁰⁾

이와 같이 미술교육이 가진 독특한 특징들은 창의력과 상상력을 동반하면서 과거를 이해하고 나아가 미래를 소통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므로 문화재 교육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것이며 문화재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새로이 발전시키고 전달 할 수 있는 가장 흥미롭고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위의 교과서별 문화재 관련 교육 분석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교육 과정의 미술교육 내에서 문화재교육은 주로 감상영역에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미술교육을 활용한 문화재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나 기법적인 면에만 주목하는 것, 또는 완성된 작품만을 감상하고 평가하는 것에서 벗어나

20) 제시카 호프만 데이비스, 『왜 학교는 예술이 필요한가』, (열린책들, 2013), pp. 91-131. 참조.

문화재 현장에서 그 문화재에 담긴 이야기를 느끼고 사회적, 문화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미술교육이 지닌 독특하고 특성들을 바탕으로 미술 교육에서의 효과적인 고궁 문화재 활용 교육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볼 수 있다.

첫째, 단편적인 표현 재료나 기법을 통한 재현이나 표현보다는 이해와 감상이 어우러진 교육이 되어야 한다.

문화재가 만들어진 역사적, 사회적 배경, 제작 과정의 체험을 통해 조형 사고, 제작 과정과 기법, 그리고 조형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 내재된 조형 의식과 시대정신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미술과 수업에서 기법을 통한 재현보다 우리의 미의식, 조형 정신과 문화적 정체성 체득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중등 미술 교육이 전문가를 길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듯 인성과 정서, 미적 체험, 조형 교육으로 의미를 두고 미술 문화재에 자긍심을 갖도록 도와야 한다.

둘째, 실제 문화재를 관찰하고 이해, 감상하거나 제작해 보는 시각적이고 촉각적인 체험이 강조되어야 한다.

즉, 단순한 이해나 바라보는 것에서 벗어나 체험적이어야 한다. 박물관이나 고궁과 같이 문화재를 찾아가는 현장 수업이 강조되어야 하고 실제 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관찰, 분석, 해석하고 미술교육이 이루어지는 이해, 감상, 표현활동에 적용하면서 그 시대의 생활과 조형 의식을 경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새롭게 해석되고 재창조하는 학습 활동이 되어야 한다.

재현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전통을 원형대로 계승하는 것보다 재현을 바탕으로 새롭게 해석되고 변형하면서 오늘의 미의식과 시대적 요구에 따른 생동감 있는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른 이해와 감상, 표현 활동을 통하여 문화재에 내면화된 정신성과 미의식이 오늘의 삶에 비추어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 새롭게 계승하고 발전시킬 것이 무엇인지 동

시대의 미의식으로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²¹⁾

미술교육을 활용한 문화재교육을 통하여 문화유산에 담긴 우리 민족의 미의식과 조형미를 탐구하고 전통을 재창조함으로써 계승, 발전시켜야 할 문화유산으로서의 의미뿐 아니라 전통 미의식의 정체성을 확립 할 수 있으며 미술교육에서의 창의성의 개념을 확대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문화유산을 즐길 수 있는 습관을 기르고 후에도 계속 문화유산을 즐기고 볼 수 있도록 하는 평생의 큰 재산이 될 것이다.

2. 미술교육에서 고궁 문화재 활용 방법

우리 문화와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고궁 문화재현장과 박물관 등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술교육에서 고궁 문화재를 활용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궁 문화재 읽기, 고궁 현장 체험, 미술 표현 학습과의 연계라는 3단계의 학습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고궁 문화재 읽기, 고궁 현장 체험, 미술 표현 학습과의 연계의 3단계는 미술수업에서 확장된 이해-감상-표현활동이 된다. 이 세 가지 범주는 하나의 시각적 경험을 서로 다른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봄과 동시에 출발과 끝을 가진 하나의 순서로 접근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안내 지도의 역할을 한다.²²⁾ 미술교육에서 세 영역은 상호 보완적 의미를 갖고 있으며 때로는 통합적 수업 운영을 함으로써 표현력과 이해력, 감상력을 높일 수 있다. 이 세 영역은 미적체험의 직, 간접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표현이 실제적인 제작과

21) 이성도, 김혜숙, 김서진, 손명선, 『전통미술 문화교육』, (미진사, 2005), pp. 355-358
참조.

22) 전국미술교과모임, 문화연대, 『시각문화교육 관점에서 쓴 미술교과서』, (휴머니스트, 2000), p. 18.

정이라면 이해나 감상력을 통해 높여진 미적 안목은 보다 나은 표현으로 승화될 수 있다. 미술의 감상 역시 이해교육과 제작 경험을 통한 미적 체험을 동반한다면 보다 높은 감상 수준으로 끌어올려질 수 있다.²³⁾

1) 고궁 문화재 읽기 단계

고궁 문화재에 대한 조사와 탐구 수업, 감상수업과 같은 고궁 현장 체험 학습 이전의 선행 이해활동, 감상활동 등이 고궁 문화재 읽기 단계라 할 수 있으며 고궁 문화재의 내용이 담긴 교과서와 멀티미디어 등을 학습 자료로 활용하여 지도할 수 있다.

첫째, 조사와 탐구학습은 교사중심의 설명식 학습과는 달리 학생들에게 고궁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도록 한 후 ‘어떠한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당시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인가?’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역사가들이 실제 연구하는 과정을 학생들이 행해보도록 하는 학습유형이다. 이 과정에서는 사고 기능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으며, 사고기능 이외에도 고궁 문화재에 대한 기초지식을 형성하고, 적용하며, 평가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데 매우 적합한 수업 방안이다. 또한 자료에 대한 분석력이나 판단력을 개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념과 일반화를 통한 보편적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자신감과 성취의식 등을 획득하게 함으로써 기능, 지식, 가치 및 태도의 세 가지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학습방법이기도 하다. 이러한 학습은 고궁 문화재에 대한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그 문화재 속에 담긴 역사적 의미와 미적 요소를 찾아내는데 중점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사는 고궁 문화재에 대한 궁금증을 충분히 유발시킬 수 있는 탐구상황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수업상황에 적용한 적절한 단계를 구성하여야 하며 학생들의 수준에 적절한 고궁 문화재 자료가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23) 전국미술교과모임, 문화연대, 위의 책, p. 261.

둘째,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학습이다. 실물자료로서 고궁 문화재를 활용한 수업이나 현장 체험 학습이 학생들에게 생동감 있는 학습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지만 학습 자료의 준비나 상황이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 또는 대체할 수 있는 방안으로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고궁 문화재 학습이 가능하다.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경희궁은 각각의 고궁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미리 보는 궁궐, 가상 체험, 소개, 역사, 알고 싶은 이야기, 들여다보기, 영상자료, 사진자료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또한 국립고궁박물관 사이트에서도 고궁 관련 유물, 문화재를 소개하고 검색할 수 있으며 영상, 사진, 기사 자료 등을 통해 고궁과 문화재관련 이야기와 소식들을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박물관이나 고궁의 문화재와 관련한 사이트의 동영상, 사운드 및 이미지 자료 등을 다양한 미디어가 결합된 멀티미디어 문화재 학습은 학생들의 흥미를 높여줌과 더불어 또 다른 교육적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교사의 조작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어진다거나 학생 입장에서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멀티미디어 학습은 지양되어야 한다. 멀티미디어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²⁴⁾

이외에도 다양한 선행 감상 수업인 고궁 문화재 읽기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고궁에 대한 사회, 문화적 배경과 더불어 회화, 조형, 건축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으며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타 교과 수업과 연계하여 구성하면 학습자의 동기부여와 함께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효과적인 수업이 될 수 있다.

24) 최용규, 『초, 중학교 문화재 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사회과학교육연구소, 2006), pp. 22-23 참조.

2) 고궁 현장 체험 단계

미술교육에서 고궁 문화재를 활용하여 수업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현장 체험 학습은 학생의 경험을 중시하는 경험주의 교육철학과 학습자의 학습 상황 참여를 강조하는 학습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고궁 문화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미술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배운 지식과 정보를 계속적이고 창조적으로 실행하며 개념과 원리 및 가치를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게 된다.

현장 체험 학습은 학생의 흥미를 자극하고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크게 부각되고 있는 학습유형이며 내재적 흥미를 이끌어 몰입하게 하고 능동적인 학습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자연스럽게 우리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 고궁이라는 공간 속에서 학생들은 건축, 자연, 회화, 조각 등의 조형물을 통해서 아름다움과 자연미, 공간미, 조화미등 다양한 미적, 조형적 요소를 실제로 체험할 수 있으며 그 안에 담긴 사상과 당대의 삶을 느낄 수 있다.

현장 체험 학습은 그 자체로 완결된 형태의 수업목표를 성취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앞서 제시한 것과 같이 학교에서 배운 개념이나 정보들과 학교 밖의 세계 사이의 연결을 요구한다. 다시 말해서 교실에서 배운 지식을 실제 고궁 문화재 공간에서 관찰하고 검증하는 활동을 통해 보다 체계화된 미술교육에서 고궁 문화재를 활용한 미술교육과 문화재 교육의 연계 학습의 목표 달성을 도모해야 한다. 따라서 고궁 현장 체험 학습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사전, 사후에 충분한 준비와 지도가 병행되어야 의미 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다.²⁵⁾

교사는 사전에 관찰, 조사할 주제와 세부내용, 대상 등을 확인해 두어야 하며 학생들에게 학습의 목적을 충분히 인식시켜 무엇을 보고, 묻고, 들을 것인가를 계획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여기서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습 방법

25) 최용규, 앞의 책, p. 20 참조.

은 고궁 문화재 현장 학습 활동지의 제공이다.

배움의 과정은 ‘?(물음)-!(깨달음)’과 같이 상징화 할 수 있다. 학습은 묻고 답하는 일련의 연속적인 과정이다. 문화재 현장에서 활동지의 활용을 통하여 궁금증을 갖게 하고 의문을 추구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정답을 제공하는 활동보다 교육 현장에서 더 중시되어야 할 근원적인 체험 영역이다. 학생들은 먼 과거로부터 전달되어 온 신기한 물건들을 만지고 상상하고 조작하고 냄새 맡으며 각자의 질문들을 생성하고 지우고 다시 생성하며 풍부하게 사고 할 수 있다.²⁶⁾

활동지는 각각의 고궁과 국립고궁박물관에서도 제공되고 있지만 학교 미술 수업과 연계될 수 있으며 미적요소와 문화재요소를 함께 학습할 수 있는 활동지의 교사들의 적극적인 제작, 개발이 필요하다. 활동지는 문화재라는 대상과 학생이라는 학습자가 상호 소통을 위한 기재로 작용해야 하며 학교 평가지와는 다르게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 동기 유발이 되어야 하며 학년과 수준에 맞도록 각각의 특성을 살리는 다양한 유형의 활동지를 개발해야 한다.

본 논문의 고궁 문화재 현장 미술 수업 활동지에서 경복궁을 대상으로 한 활동지를 제시할 것이며 미술교육에서 고궁 문화재 현장 수업에 활용 가능한 활동지의 유형을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선중심형이다. 문화재 대상의 동선에 따라 활동 문제를 순차적으로 제시하는 형태를 시선중심형이라고 한다. 대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주된 활동이 된다.

둘째, 주제통합형이다. 학습 활동 내용의 주제에 따라 문화재를 특징별로 분류하여 활동지를 제시하는 형태를 말한다. 활동지 내용에 따라 학습자가 선택적으로 동선을 조정하면서 학습이 이루어진다.

셋째, 낱말퍼즐형이다. 퍼즐 자체에 대한 흥미도가 높아 학생들이 선호하

26) 이혁규, 『‘문화재에 관한 수업’대‘문화재를 통한 수업’』, (우리교육, 2007), p. 146.

는 활동지 유형이며 학습 내용과 더불어 해당 학년 및 수준에 맞는 상식 수준의 낱말들을 함께 했을 때 좀 더 쉽게 제작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퍼즐 속에 퍼즐을 삽입하여 문제 속에 문제가 제시되는 형태의 가로 세로 십자말풀이와 가로와 세로에 뺄셈하게 표를 만들어 놓고 가로, 세로, 대각선 등 원하는 위치에 답을 기입하여 놓고 찾도록 하는 낱말 찾아 동그라미 그리기가 있다.

넷째, 보물찾기 형이다. 대상 문화재를 찾아 사진을 찍거나 같은 모양, 표정 짓기, 찾아서 그려보기 등의 활동을 말한다. 오감을 활용하여 활동을 전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활동지 유형이다.

다섯째, 도둑찾기형이다. 대상 문화재의 사진을 변형하여 실제 문화재와 비교하여 틀린 점을 찾게 하는 활동지 유형이다. 문화재 현장에서도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알지 못하여 지나쳤던 소중한 미적 요소들을 관찰하면서 그 특징과 문양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그것에 담긴 의미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하게 한다.

여섯째, 문화재 해설형이다. 주어진 글에 대한 문화재를 찾아가는 형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식을 얻을 수 있게 구성하는 유형이다. 우리의 옛 문화재들은 그 속에 담긴 뜻을 이해해야만 올바른 감상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문제 속의 답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일곱째, 선긋기형이다. 서로 관련있는 것을 선을 그어 연결하는 활동지 유형으로 관찰을 통해 공통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학습이 가능하다.²⁷⁾

이밖에도 다양한 활동지 유형을 활용할 수 있으며 활동지를 통한 체험 활동은 고궁 문화재에 대한 단편적 감상에서 머물던 것에서 나아가 미술교육에서, 그리고 고궁 문화재 현장에서 오감을 활용하여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학생들의 흥미를 지속시키고 적극적인 학습, 감상의 기회와 관심을

27) 김봉수, 「문화재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문화재와 학교교육』, (한국전통문화학교 전통문화연수원, 2010), pp. 15-24 참조.

높여 줄 수 있다.

고궁 문화재 현장에서 활용하는 활동지는 미술 수업뿐만 아니라 역사 수업 등과도 통합되도록 제작하여 다양한 교과를 넘나드는 통합적인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표현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 경험이 학문이나 교과의 경계를 따라 가로막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르고 통합되도록 구성한다.

3) 미술 표현 학습과의 연계 단계

고궁 문화재 현장 체험 학습이 끝난 후에 그 내용을 학습 전체에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사후 학습을 계획하는 것은 보다 완결된 구조의 학습목표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여기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미술 수업의 표현 학습과의 연계이다.

표현 학습은 창의적인 자기표현으로 학생들의 창조적인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표현 자체가 또 다른 체험으로서 체험은 표현으로 인하여 더욱 심화되고 표현은 체험 속에서 성취되는 것이다. 학생들이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재구성한 것을 바탕으로 재창조 해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창조한 체험 활동의 결과물은 서로가 공유하여 다른 학생들의 작품을 음미하고 새로운 문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자신을 풍부하게 성장시켜감과 동시에 자신의 문화적 실천을 통해 새로운 '문화 창조자'로서 역할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²⁸⁾ 또한 학생들 자신의 정체와 그들이 세상에서 하는 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학생들은 미술 제작, 즉 표현 학습을 통해 자신들의 경험을 종합하고 작품을 만들어 내는 의미와 경험에 대해 생각하게 되며 형태와 내용을 녹여 미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으로 만들어 내고 내용은 미적인 형태에 의해 전달된다.

28) 문화재청, 『문화재 교육의 이론·방법 및 실제』, (문화재청, 2000), p. 15.

고궁 문화재 현장에서 활동지를 통해 다양한 미적 활동이 이루어진 후 다시 교실 환경에 돌아와 연계된 수업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예를 들어, 경복궁 근정전의 돌짐승들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졌다면 학생들은 그 형태를 접하고 흥미를 가지고 그 의미를 깨달았을 것이다. 이것에서 나아가 나만의 수호 돌짐승을 만들어보는 표현 활동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러한 고궁 문화재 체험 활동 후의 미술 표현 학습은 인생에서의 의미를 발견하고 또 의미를 만들기 위해 행해지는 문제해결의 한 형태이다.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의미와 이해를 발전시키도록 해야 하며 교사는 학생들에게 문화재와 미술과 삶에서 그들 자신을 의미 있게 표현하도록 돕는 기술과 태도와 습관을 발전시키도록 다양한 표현 활동 수업을 구성하여 도움을 주어야 하며 그 동기와 활동을 고안해야 한다.²⁹⁾

이와 같이 미술교육에서 고궁 문화재를 활용하는 고궁 문화재 읽기, 고궁 현장 체험, 미술 표현 학습과의 연계라는 3단계 수업은 미적 앎과 미적 체험을 가능하게 한다. 세상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볼 줄 알게 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현실에 필요한 지식과 자신이나 세계의 존재에 대한 지식의 앎의 논제는 교육에 있어서 중요하다. 미적 앎은 어떤 현상을 약속된 틀로 축약, 개념화하지 않고 대상의 살아있는 다양한 특질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며 이미 학습된 경험을 초월하는 앎의 방식 중 하나이다. 이것은 개념적인 앎과는 반대의 성격을 가지면서 개념화되지 않는 직접적이고 생동하는 앎의 방식을 취한다. 즉 직관에 의한 것으로 분석이나 추론을 통하지 않고 대상과 직접 교감하는 형식을 취한다.³⁰⁾

또한 미적 체험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한 인지력을 강화시켜 보다 명확하게 관찰하는 능력을 길러 준다. 다양한 주변 환경에 적응하는

29) 톱 앤더슨, 멜로디 밀브란트, 『삶을 위한 미술 교육』, (예경, 2007), p. 204.

30) 임정기, 이성도, 김황기, 『미술교육의 이해와 방법』, (예경, 2006), p. 157.

방법을 익히고 이를 변화시켜 환경 속에서의 경험의 질을 높여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한 나름의 가치관을 가지게 된다. 더불어 자신이 지닌 가치관에 입각하여 개인적 양식과 선호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한편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즐기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게 된다.³¹⁾

고궁 문화재 읽기, 고궁 현장 체험, 미술 표현 학습과의 연계라는 3단계 수업은 사회와의 관계, 타 교과와의 관계를 심화시키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미술의 영역을 넓히면서 구성되어야 하며 전통문화와 정서를 기반으로 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고궁 문화재 현장 미술교육 지도 계획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재는 학생들에게 가장 생생한 미적, 역사적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소재지만 실제 학교 교육에서 문화재에 대한 교육은 교사, 학생 모두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실정이다. 교사는 문화재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학생은 새롭게 외워야 할 지식으로만 인식하고 있다. 문화재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문화재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얻는 것을 넘어, 그 안에 담긴 예술적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은 머리로 지식을 습득하기보다 오감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학습 활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거나 심화 및 환류를 시켜 줄 수 있는 체험 활동을 구성해 주어야 한다.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소재인 문화재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능동적 탐구자로서 문화재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재를 비판적으로 읽으며 나아가 직접 만들어 보거나 문화재에 포함된 기능을 습득하기 위한 직접적인 체험 활동인

31) 임정기 외, 앞의 책, p. 175.

현장 수업은 반드시 필요하다.³²⁾

이 과정에서 교사는 학생 각자의 개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면서 학생들을 하나하나의 인간으로 이해하고 그들의 내면에 담겨 있는 것을 표출하여 창의적으로 다양하게 체험하고 표현할 수 있는 개방적인 분위기를 이끌어 주어야 한다. 또한 학생들에게 시지각을 길러주어 직접 생활 속에서 정서적이고 시각적인 경험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도와 줄 수 있는 시청각 자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³³⁾ 여기에서 교사는 다양한 문화재를 학습자의 발달이나 사고에 맞게 세심하게 재구성한 교재로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은 문화재 및 문화재 관련한 역사 내용과 미적 요소 등에 흥미를 가질 수 있으며 또한 문화재가 가지는 의의를 충분히 되살리도록 도울 수 있다.³⁴⁾

이와 같은 교사의 역할과 더불어 문화재를 교재로 활용한 활동지는 전시 유물과 관람객인 학습자가 상호 소통을 위한 기재로 작용하며, 학교 평가와는 다르게 구성되어야 한다. 학생의 자발적인 학습 활동으로 스스로 문화재와의 대화를 통해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며 학년과 수준에 맞도록 각각의 특성을 살리는 다양한 유형의 활동지를 개발해야 한다.³⁵⁾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고궁 문화재를 교재로 하여 문화재 현장 속에서 활용 할 수 있는 학습 활동을 활동지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우선적으로 고궁 문화재 현장에서 학습되도록 구성하였다.

앞서 문화재 교육은 문화재 현장에서의 시각적이고 촉각적인 체험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미술표현은 개인의 정신의 반영이지만 주변 세

32) 최용규, 『초, 중학교 문화재 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사회과학교육연구소, 2006), pp. 11-14 참조.

33) 임정기, 이성도, 김환기, 『미술교육의 이해와 방법』, (예경, 2006), pp. 141-142.

34) 최용규, 앞의 책, p. 9.

35) 김봉수, 「문화재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문화재와 학교교육』, (한국전통문화학교 전통문화연수원, 2010), p. 15.

계에 대한 경험이 그 기초가 된다. 개개인이 얼마나 선명한 경험을 축적하느냐에 따라 미술표현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도 그 만큼 풍부해 지는 것이다. 작품에 대한 영감은 실제 세상을 주관적으로 경험하는데서 발생한다.³⁶⁾ 고궁 문화재 현장에서의 체험학습은 이러한 미적 체험을 가능하게 한다. 미적 체험이란 단순한 감각적 즐거움의 경계를 넘어 미적 가치 체험이라는 의미로서 인간 내면의 깊은 영혼의 울림을 동반한다. 다른 체험들과 같이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을 지니며 미적 직관과 미적 감정의 본질적 계기로 이루어진다. 즉 미적 체험은 아름다움을 궁극적인 가치 내용으로 하는 가치 체험이며 객관성, 보편성의 요구를 함축하는 인식의 출발점으로서 인격적, 개성적 주관성에 그 존립 근거를 찾는 체험이다.³⁷⁾

둘째, 수용자 중심의 학습으로 이해, 표현, 감상 교육이 균형을 이루도록 구성하였다.

미술교육을 활용한 고궁 현장 문화재 교육은 무엇보다 학생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의 방식으로 활동하고 체험하며 발견하고 탐구하도록 역동적이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고궁 문화재 속의 다양한 미적 요소에 대한 지식 전달 뿐만 아니라 문화유산의 감수성을 증대하는 학습자 중심의 체험 활동에 역점을 둔다. 고궁 문화재 현장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감상이 이루어 질 수 있으며 고궁 문화재에 대한 이해가 함께 이루어 질 수 있다. 나아가 다양한 표현 활동으로 연결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형식화 되어있는 미적 체험 및 감상이나 표현 중심의 학습에서 벗어나 미술 표현의 핵심인 이해, 표현, 감상 교육이 문화재 교육에서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미술의 다양한 분야를 적용하였으며 학교 미술 수업과 연계 될 수 있는 단원과 내용을 제시하였다.

36) 임정기 외, 앞의 책, p. 161.

37) 위의 책, p. 26.

활동지는 다양성이 추구되도록 미술의 회화, 조소, 디자인, 공예, 서예 등의 여러 분야를 적용하여 구성하였다. 활동지에 적용된 몇 가지 분야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회화 영역은 찾아서 그려보기와 같은 활동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회화는 미술의 장르에서 물리적인 저항이 가장 작다.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하며 상상과 창의성을 활성화 시킨다. 그러므로 아주 간편하게 자신의 사상, 감정을 자유로이 표출 할 수 있다. 회화의 표현은 대상을 관찰하고 구별하고 관련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며 시각 시계에서 다양성과 변화에 대한 관찰력을 예민하게 해준다. 이를 통하여 단순히 고궁 문화재 대상을 묘사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다르게 관찰하고 다르게 지각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한다.

조소 영역은 만들어 보기, 만져 보기와 같은 활동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시각적, 촉각적 경험에 의하여 구체적인 물질로 표현하게 한다. 구체적인 물성을 체험하면서 서로와 서로의 차별성을 이해하고 활용하며 보다 개성적인 자기표현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와 자연 그리고 사물과 사물을 폭넓게 이해하고 경험하면서 새롭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즉 사물의 본성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조화를 이루고 아름답게 존재할 수 있는 모습을 찾아내고 실현시킨다. 이러한 특징은 자연 속에 조화를 이루는 우리의 고궁 문화재와도 닮았다.

서예 영역은 정서를 순화하고 인격을 도야하며 원만한 인간형성에 크게 기여 한다. 직관력을 높이고 전통문화를 계승하며 문화를 사랑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세계를 표현 할 수 있다.³⁸⁾ 고궁 문화재 현장에서도 현판이나 편액에서 점과 획이 갖는 선적인 아름다움과 글씨체가 갖는 형태미, 글자들과 여백의 공간이 갖는 비례와 구성을 아름다움을 학습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미술의 전 영역이 고르게 선정되도록 구성하였으며 학교 미술 수업

38) 임정기 외, 앞의 책, pp. 178-246 참조.

과 연계 될 수 있는 단원과 내용을 연결하여 제시하였다.

넷째, 전통 미의식이 강조되도록 구성하였다.

문화재는 민족 문화의 꽃이며 결정으로 무한한 자긍심과 애정의 대상이다. 유구한 역사와 빛나는 문화의 지층으로 이어진 우리의 문화와 그 문화재를 이해하고 계승하는 것은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세대에게 민족과 개인의 문화적 정체성과 자부심을 갖게 하며 세계 속의 한국 미술 문화 창조의 토양이 된다.³⁹⁾ 미술 교육을 활용한 문화재 교육 활동지를 통하여 학생들이 체계적이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예술미, 조형미를 이해하고 문화적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학생들이 흥미와 동기유발을 창의성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고궁 문화재 현장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흥미를 갖게 하는 것은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학생 스스로가 자유롭게 감상하고 이해하고 표현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조건 없는 자유로움은 창의성 계발과 새로운 발상의 기본 토양이 된다.⁴⁰⁾

이를 바탕으로 다음에서 제시될 고궁 현장 미술교육 프로그램 활동지를 통하여 다양한 미술 활동과 더불어 고궁 문화재에 대한 폭넓은 감상과 이해 학습이 이루어져 한다. 또한 문화재에 대한 감수성을 갖게 하고 현재 사회에서 끊임없이 문제되는 문화재의 보존과 개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해야 할 것이다.

39) 임정기 외, 앞의 책, pp. 18-21.

40) 위의 책, p. 34.

4. 고궁 문화재 현장 미술 수업 활동지

	
 고궁이 살아있다!	고궁지도 그리기
<p>● 우리는 궁궐에 살게 되었습니다. 궁궐을 거닐어 봅시다. 주제를 정하여 나만의 궁궐 지도를 자유롭게 그려 보세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구에게 전해주고 싶은가요? • 어떤 이야기가 담긴 지도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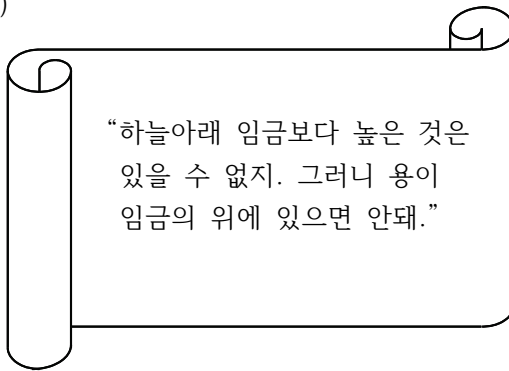


고궁이 살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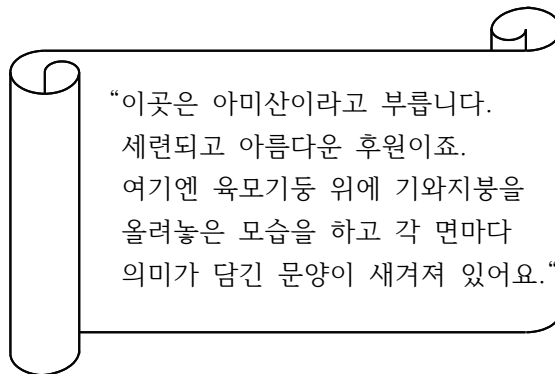
고궁 이야기로 장소 찾아보기

- 다음 글이 이야기하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1. 고궁 속 한 장소를 설명하는 카드를 다양하게 제작합니다.
 2. 카드를 오려 학생들이 뽑도록 합니다.
 3. 학생들은 고궁을 탐색하며 카드 속 글이 말하는 장소를 찾아봅니다.


예시1)



예시2)





 고궁이 살아있다!

사진으로 장소 찾아보기

● 어떤 장소의 모습일까요?

1. 궁궐의 일부 사진을 오려 학생들이 선택 수 있도록 합니다.
2. 학생들은 고궁을 탐색하며 사진 속 장소를 찾아봅니다.
3. 사진을 붙이고 고궁을 보며 이어 그려봅니다.
 - 이름은 무엇인가요? 어떤 장소였을까요?
 -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예시1)



예시2)





고궁이 살아있다!

경복궁 자경전 십장생 굴뚝

- 경복궁 자경전의 십장생 굴뚝은 장식 문양으로서 뿐만 아니라 미술 작품으로도 그 가치를 높이 평가 받고 있습니다. 독특한 굴뚝 모양과 여러 가지 기원이 담긴 십장생 문양들이 담겨 있습니다.
- 어떤 특징이 있는지 다양하게 적어보고 문양을 찾아 자유롭게 그려봅시다.
 - 십장생이라하는 열가지의 상징물을 찾아 그려봅시다.

- 그 외에는 어떤 문양이 그려져 있을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힌트하나. 박쥐를 찾아보세요! 박쥐가 가진 의미는 무엇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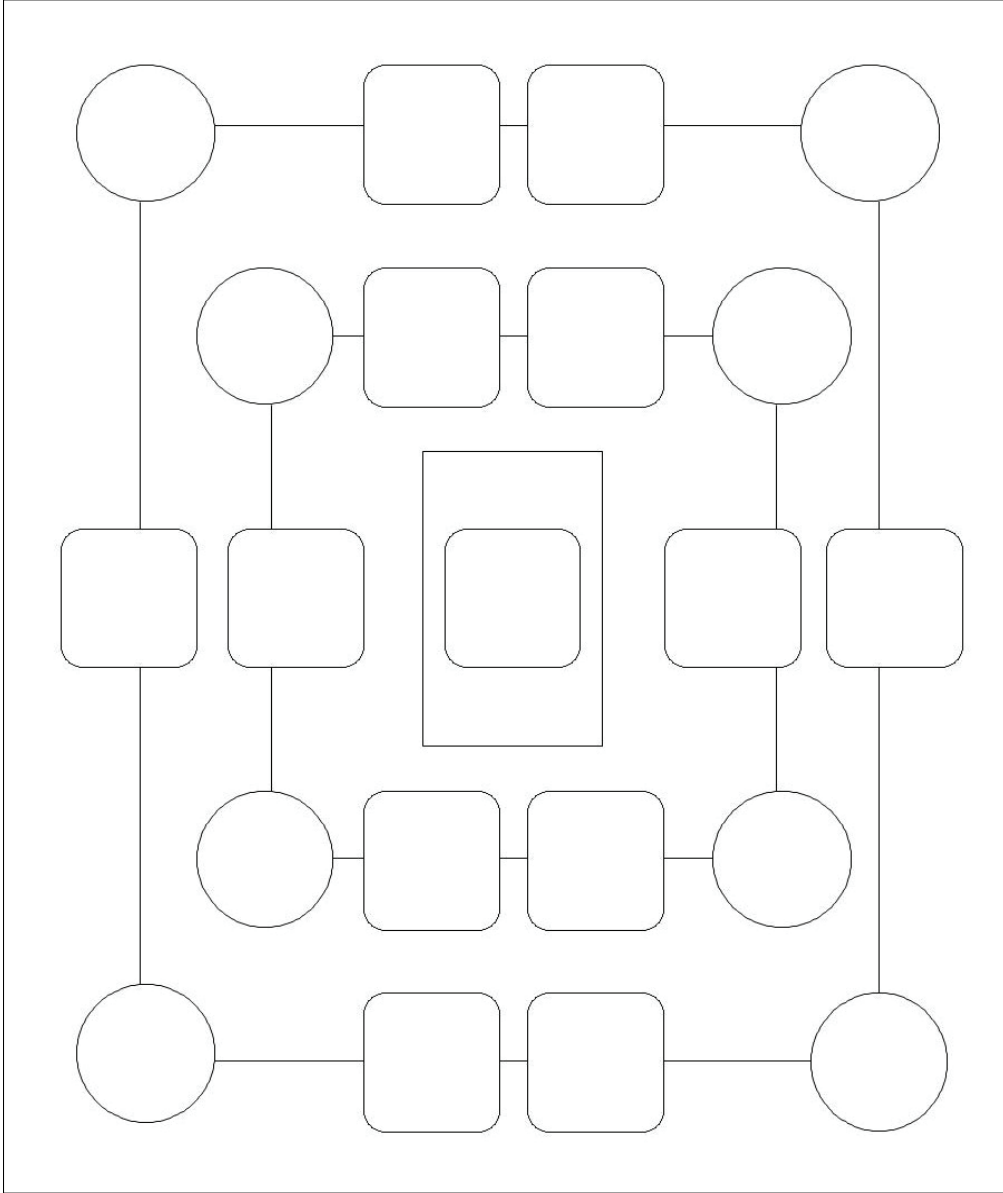




고궁이 살아있다!

경복궁 근정전을 지키는 동물들1

- 여기는 경복궁 근정전입니다. 여기에는 근정전을 지키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각 위치에 맞는 동물을 찾아 표정과 모양을 살펴서 그려봅시다.
- 이들은 누구일까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고궁이 살아있다!

경복궁 근정전을 지키는 동물들2

- 근정전을 지키고 있는 여러 가지 동물들을 찾아보았습니다.
 - 어떤 동물들이 없었나요? 용은 어디에 있을까요?

- 화목해보이는 석견 가족을 찾아 그려봅시다. 사진으로 찍어 붙여도 좋아요.

- 나의 방을 지켜주는 수호상을 만들어 봅시다.





고궁이 살아있다!

아름다운 담장 장식1

- 왕비가 살았던 교태전으로 가봅시다. 보이시나요? 교태전에서 자경전으로 이어지는 길의 담장에는 아름다운 장식들이 가득합니다.
 - 어떤 장식들, 문양들이 보이나요? 그려봅시다.

- 나라면 어떤 장식을 했을까? 종이를 오려서 다양한 장식을 만들어 봅시다.





고궁이 살아있다!

아름다운 담장 장식2

- 경북궁의 아름다운 화초담의 장식들을 감상해 보았습니다.

- 다양한 문자와 화초 문양을 발견했나요? 연결해보고 의미를 적어보세요.



◆ 春(봄 춘)

()



◆ 국화

()



◆ 매화

()




◆ 張(베풀 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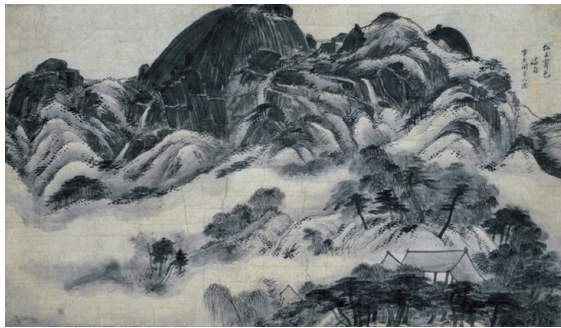
 **고궁이 살아있다!**

세기를 넘나들며 경치를 감상하다

- 자랑스런 우리 화가들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세기를 넘나들며 경치를 감상 할 수 있지요.
이 분들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며 화폭에 담으셨을까요?
우리도 이 분들이 계셨을 그 자리 즈음에 다가가볼 수 있을까요?
똑같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유롭게 사진으로 담아 봅시다.




안중식, 백악춘효(여름본), 등록문화재 제485호,
1915년, 비단에 채색, 51.5×125.9cm, 국립중앙박물관소장



겸재 정선, 인왕제색도, 국보 제 216호, 1751년,
79.2×138.2cm, 리움미술관 소장.





 **고궁이 살아있다!**

지붕 위의 잡상

- 지붕 추녀 마루를 올라다 보세요. 작은 토우들이 보이나요?
우리가 잘 알고있는 '서유기'에 나오는 삼장법사,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이나 용, 사자, 해치 등을 조각하여 올려놓기도 합니다.

- 아래의 지붕 위에 보이는 모습대로 그려볼까요?



- 이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고궁 중 으뜸이자 범궁인 경복궁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활동지를 제작하였다. 미술교육을 활용한 고궁 현장 문화재 교육 활동지는 자연스럽게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활동지의 구성 내용과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고궁 지도 그리기는 고궁을 방문하고 감상하면서 주변의 자연환경과의 어울림, 건축물의 배치 등을 자연스럽게 학습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고궁 지도를 소개할 대상과 주제를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창의적이고 다양한 발상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성하였다.

고궁이야기로 장소 찾아보기와 사진으로 장소 찾아보기는 준비뽑기, 보물찾기와 같은 형식으로 궁궐 내에서 알아야 할 내용들, 재미있는 이야기, 옛 이야기, 부분 이미지 사진 등의 힌트를 보고 학생들이 그 장소나 유물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문화재에 대한 내용과 그 대상을 흥미롭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이해 할 수 있다.

경복궁 자경전 십장생 굴뚝은 독특한 굴뚝의 형태와 세련된 조형미,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십장생 무늬가 담긴 장식적인 기능을 갖춘 아름다운 작품이다. 감상을 통하여 굴뚝의 조형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십장생의 요소를 찾아보고 활동지에 그려보도록 하여 십장생의 상징과 의미를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경복궁 근정전을 지키는 동물들은 근정전 월대의 사신상, 십이지신상의 감상을 돕기 위해 제작되었다. 학생들은 근정전의 동물상들을 그려보면서 근정전을 다방면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사신상, 십이지신상의 위치와 의미 등을 학습할 수 있으며 용의 위치와 의미, 조각 속에서 우리 민족의 해학적인 표현까지도 잊지 않고 감상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름다운 담장 장식은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교태전에서 자경전으로 연결되는 꽃담, 장식담을 대상으로 하여 담장에 장식된 다양한 의미가 담긴 문양을 감상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기를 넘나들며 경치를 감상하다는 같은 장소, 다른 시대라는 이 땅과 문화재가 갖는 소중한 특징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옛 화가의 그림과 오늘날 우리의 일상에서 학생들이 시각적으로 체험 할 수 있는 그림과 비슷한 실제 환경을 만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적 체험을 풍부하게 해줄 수 있다.

이와 같이 고궁 현장 문화재교육 활동지는 미술교육을 활용하면서 문화재 현장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흥미로운 방법으로 자연스러운 감상과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나아가 미술 교과와의 수업시간을 통하여 표현활동으로 연결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 더불어 우리 고궁의 가치를 깨닫고 보존하여 창조적으로 새로이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갖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V. 결론

문화재는 수많은 역사적인 이야기와 우리 고유의 가치관, 정신, 그리고 과학과 기술, 삶의 지혜, 생활 풍속이 녹아든 소중한 유산이며 절제미, 여백미, 형태미, 실용미, 공간미, 자연미 등 우리 전통의 다양한 미의식이 담겨있다. 문화재는 학습자료로서도 중요하지만 학습 과정에서 미의식이나 시대정신을 이해하며 역사에 대한 상상력과 다양한 미적 가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미적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특히 고궁은 회화, 조각, 장식, 건축, 조경적인 미적 요소 속에 다양한 미의식이 고스란히 녹아들어있는 종합 미술 교육의 장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현장학습이나 문화유산 답사로 문화재 현장을 찾으면서도 똑같이 보이는 수많은 문화재들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스치듯 지나는 단편적 감상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오늘의 우리 문화와 함께 존재하며 나아가고 있는 문화재의 가치를 깨닫도록 하는 일은 미술교육의 중요한 역할이며 미술교육을 활용하여 문화재를 바르게 감상하고 이해하는 능력과 그것을 향유하는 심미적 태도와 미적 감수성, 시각적 사고, 창의성을 길러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필요성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미술교육을 활용한 고궁 현장에서의 문화재교육을 통해 풍부한 미적 체험의 경험을 제공해 주고 지식을 확장하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내면화하여 새로이 계승, 발전시키려는 의지와 관심을 갖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본 논문에서는 고궁 문화재 속에서 회화 및 문양, 조각, 건축 및 조경, 그 외 장식 등 미술적 요소를 탐색하고 현행 교육과정의 미술교과서에서의 문화재 교육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생산물을 수반하고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고 공감하게 하며 다양성을 인정하고 탐구와 반성, 평가기술을

발전시키며 삶과 깊은 연관성을 가진 미술교육의 독특한 특징과 함께 다음과 같은 문화재교육 방향을 탐색하였다.

첫째, 이해와 감상, 표현활동이 어우러진 교육이 되어야 한다.

둘째, 시각적이고 촉각적인 체험이 강조되어야 한다.

셋째, 새롭게 해석되고 재창조하는 학습 활동이 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미술교육을 활용한 고궁 현장에서의 문화재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경복궁을 대상으로 한 고궁 문화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활동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고궁 문화재 현장에서 학습되도록 하였다.

둘째, 학생 중심의 학습으로 이해, 표현, 감상 교육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다.

셋째, 미술의 다양한 분야를 적용하였으며 학교 미술 수업과 연계 되도록 하였다.

넷째, 전통 미의식이 강조되도록 하였다.

다섯째, 흥미와 동기유발을 창의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하였다.

고궁 문화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미술교육을 활용한 문화재교육은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문화유산을 접하면서 삶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으므로 풍부한 미적 체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수 있다. 또한 회화 및 문양, 조각, 건축 및 조경, 그 외 장식 등 각 분야에 걸쳐 미의 요소들 속에서 우리 전통의 미의식을 학습할 수 있으며 당대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더불어 학생들이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학습이 가능하며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우리 문화와 세계문화에 대한 올바른 안목을 길러 줄 수 있으므로 강조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미술교육에서 고궁 문화재 현장을 활용하는 교육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미술교육과정 내에서 체계적으로 문화재를 다루어야 한다.

둘째, 교사의 문화재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셋째, 다양한 학습자료와 프로그램의 개발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넷째, 우리 문화재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이와 같이 우리 문화재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고궁 속의 다양한 미술적 요소를 교재로 하여 학습자의 발달이나 사고에 맞게 세심하게 재구성한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미술교육에서 고궁 문화재 현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실행에 옮겨진다면 미술교과 뿐만 아니라 타 교과에도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학생들의 정서발달과 창의성발달.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과 계승, 발전하려는 의지를 심어주는 전인교육이 실현 될 것이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단 행 본 >

- 강민기, 강현숙, 윤희상, 이선재, 이숙희, 장경희, 『한국 미술 문화의 이해』, 예경, 2006.
- 양택규, 『경복궁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 책과 함께, 2007.
- 윤돌, 『정겨운 조선의 얼굴, 마음으로 읽는 궁궐이야기』, 이비락, 2004.
- 이성도, 김혜숙, 김서진, 손명선, 『전통 미술 문화 교육』, 미진사, 2005.
- 이수경, 김정, 이주연, 『문화의 이해를 돕는 미술교육 프로그램』, 양서원, 2003.
- 이혁규, 이경화, 이선경, 정재찬, 강성우, 『수업, 비평을 만나다』, 우리교육, 2007.
- 임정기, 이성도, 김환기, 『미술교육의 이해와 방법』, 예경, 2006.
- 장호수, 『문화재학 개론』, 백산자료원, 2002.
- 전국미술교과모임, 문화연대, 『시각문화교육 관점에서 쓴 미술교과서』, 휴머니스트, 2008.
- 전성수, 『함께 배우는 우리 미술』, 예경, 2003.
- 제시카 호프만 데이비스, 『왜 학교는 예술이 필요한가』, 열린책들, 2013.
- 조현진, 『문화재 답사로 역사와 친해지는 방법』, 교학사, 2000.
- 최정호, 『한국의 문화유산』, 나남출판, 2004.
- 툼 앤더슨, 멜로디 밀브란트, 『삶을 위한 미술 수업』, 예경, 2007.
- 한석성,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단청』, 현암사, 2004.
- 한영우, 김대벽, 『조선의 집, 동궐에 들다』, 열화당, 효형출판, 2006.
- 허균, 『궁궐장식-조선왕조의 이상과 위엄을 상징하다』, 돌베개, 2011.
- 허균, 『사료와 함께 새로 보는 경복궁』, 한림미디어, 2005.

홍순민, 『우리 궁궐 이야기』, 청년사, 2000.

『해외 문화예술교육 현장을 가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0.

『초, 중학교 문화재 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사회과학교육연구소, 2006.

문화재청 고궁 사이트 참조.

서울시 교육청 교육과정 사이트 참조.

해치 서울 사이트 참조.

<논문>

유광현, 「미술교과서에 수록된 유형문화재를 활용한 감상 지도 연구 : 초등학교 3~6학년 중심」, 경인교육대학교 대학원, 2010.

이록희, 「유물 연계 역사현장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와 발전 방안 연구 : 국립고궁박물관의 궁궐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2011.

이현숙, 「경복궁을 소재로 한 전통미술 지도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 학술지>

김봉수, 「문화재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문화재와 학교교육』, 한국전통문화학교 전통문화연수원, 2010.

<교과서>

김선아 외 6인, 중학교 미술 교과서, 천재교육, 2013.

김영길 외 5인, 중학교 미술 교과서, (주)미래엔, 2013.

김용주 외 4인, 중학교 미술 교과서, 비상교육, 2013.

김인규 외 9인, 중학교 미술 교과서, 미진사, 2013.
박동진 외 9인, 중학교 미술 교과서, 형설출판사, 2013.
심영옥 외 5인, 중학교 미술 교과서, (주)교학도서, 2013.
연혜경 외 2인, 중학교 미술 교과서, 천재교과서, 2013.
이경애 외 3인, 중학교 미술 교과서, (주)아침나라, 2013.
이주연 외 5인, 중학교 미술 교과서, (주)금성출판사, 2013.
장선화 외 2인, 중학교 미술 교과서, 두산동아, 2013.

ABSTRACT

Application Plans for Fieldwork Using Cultural Assets in Art Education

-Based on Chosun Dynasty Period's Ancient Palace-

Kim, Jimin

Major in art education

Graduate school in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Cultural property is important bequest that has many historic stories, peculiar values, science and technology, and life's wisdom. It also has diverse esthetic sense of formative matters, restrained, beauty of space, and natural beauty such as communication, industrial arts, sculptures, construction, architecture. In the quickly changing world, it is important to realize cultural property's values that we are living our lives with today's culture.

The education on such cultural property doesn't only stop at material based understanding, external reappearance, or fragmentary sentiments, but it should teach by integrating it with understanding, expression, and sentiments. So it should make learners to smoothly realize by seeing and feeling. It is important to carefully handle the tasks for its development by creatively succeeding and delivering it with

cultural property values and preservative consciousness in mind.

This essay will look into cultural property ancient palace's educational art's values and suggest teaching plans for cultural property education by applying art education at actual ancient palace site.

Education of fine arts is for every people that develops esthetic attitude, esthetic sensibility, visual thoughts, and creativity through numerous esthetic experiences. Also, it has the purpose and function of understanding and succeeding our culture.

Today's education of arts is being accomplished closely related to education in understanding, expression, sentiments. Such characteristics are effectively applied in cultural property education based on the site of ancient palace.

This essay looks into esthetic matters in the aspects of communication, decoration, construction, architecture, and analyzed how its related domain and education are being accomplished in the process of art education. This essay has the purpose of proposing teaching plans for desirable integrated education for cultural property and fine arts.

It looked into its educational matters of ancient palace and developed a studying program by considering its forms and applying its education at site.

By applying this method of education at actual site, it will not only provide many experiencing opportunities and expand knowledge but also active art classes. Also, we hope it will help develop student's esthetic attitude and sensibility, and visual thoughts and creativity, and have strong wills for developing and succeeding the pride of our cultural property.